

상황화에 관하여

팀 켈러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맥락'

대학에 들어가서 독립할 때
까지 나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목사 집에서
자랐지만 가족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구분할 수 없었고, 결
국 기독교에서 멀어졌다. (어
릴 때 내가 스스로를 그리스도
인이라고 부른 건, 기독교가
진리여서가 아니라 순전히 부
모님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
목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면서 내게는 급진적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비로소 부모
님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고 나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
게 되었다. 지금은 목사가 되
었지만, 사람들은 내 아버지가
팀 켈러라는 사실을 알면 잠깐
명한 표정을 짓는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와!
팀 켈러가 아버지였더라면, 나
는 진짜 예전부터 신앙을 가졌
을 텐데." 또는 "당신 아버지한테
배웠다면, 나도 내 자식을
믿게 만들 수 있을 텐데." 하지
만 대학 때까지 내가 믿지 않
았다는 사실을 말하면, 그들은
놀란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
가? "완벽한" 복음 설교로 유
명한 팀 켈러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
으로 팀 켈러의 설교를 들은
자식이라면 당연히 항상 그리
스도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그런데 그들은 틀렸다

이런 전제에는 두 가지 측면
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신학
적으로 보자. 성령은 잘 구성
되고 잘 표현된 복음 설교를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는다. 누
군가 성령이 반응한다고 생각
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믿는 게 있다.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뛰어난 복음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진다고 말이다. 둘
째, 이 관점은 개개인의 경험
과 문화적 맥락이 어떻게 신앙
의 핵심 요소를 이해하기 어렵
게 만드는지를 설명하지 못한
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와 관
계가 끔찍한 한 아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은 부자가 되어 행복해
지는 게 삶의 목적이라는 생각
이 팽배한 문화권에서 산다고
가정하자. 복음 설교가 아무리
완벽해도 상관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이
시며, 삶의 요점은 물건이 아
니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
할 것이다. 개개인의 경험과
맥락은 복음 듣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나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만났지만, 내 삶의 다른 요소
들이 나로 하여금 어렸을 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가 무엇인
가? 정작 내가 살아 있는 복음
을 만난 건 신학교를 갓 졸업
한 젊은 목사를 통해서였다.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요 3
장), 답은 맥락에 달려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내 아버지에게는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젊은 목사는 전에 들어보지 못
했던 방식으로 나로 하여금 복
음을 공감하고 이해하도록 만
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멋진
단어가 "상황화"이다. 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
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가

장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라
고 정의한다. 이는 복음의 진
리를 분명하게 전달할 뿐만 아
니라 현실적으로 전달하고, 연
결하고, 제시하고, 소통하는
일종의 번역 과정이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이 묻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
는 형태로 주는 것이다. 그리
고 그 대답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오늘날 복음의 상황화
라는 모델을 제안하려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 배경, 이
야기, 그리고 서사에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접근하려면, 먼
저 오늘날 문화가 어떻게 작용
하는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
다.

<3면으로 계속>



아줌마, 아저씨가 사라진 시대 잃어버린 돌봄과 환대

최근 어느 방송국에서 대치동
의 '7세 고시' 현상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였다. 그러자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나이든 엘
리트 학자들이 국회에 모여 이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었다. 이분들은 일곱 살짜리
아이들에게 과도한 학습을 강요
하는 것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
며, 다소 강한 표현을 스스럼없
이 사용하셨다. 물론, 비뚤어진
교육관과 욕심으로 아이를 부모
의 사유물처럼 여기며 학대하고
방치하는 것은 분명 아동 학대라

할 수 있다. 아이를 자신의 욕망
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하는 행위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우
리가 목격하는 '7세 고시' 현상
을 과거의 학대 개념으로 규정하
고, 그 부모들을 손쉽게 단죄할
수 있을까? 이 현상이 지나치다
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선택을 한 부모들의 고민과 불안
은 과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일
까? 정말 그저 자식 자랑과 과시
욕, 돈 자랑을 위한 수단으로 아
이들을 내모는 것일까?

<10면으로 계속>



2면
시론
민경엽 목사



4면
푸른초장
안병권 목사



7면
선교한국
손상웅 목사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소령들: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 Step 2: 주문하기
- Step 3: 시안확인/수정
-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시론

“조국이며, 안심하라!”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에 대해 왜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느냐고, 더 이상 이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다 걸리는 성도들로 인해 일선의 목사는 괴롭다.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기의 선지자였다. 유다가 망할 때 거짓 선지자 하나나는 비록 망해도 2년만 잘 견디면 나라가 회복될 테니 바벨론에서 돌아올 날만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쉬이 돌아오지 못할 테니 거기서 집 짓고 애 낳고 결혼시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땅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하나나가 올해 죽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가랴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둔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어 항상 지켜 주시리.” 하나님은 간섭하셨고 역사를 이끌고 나가신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갈 5:1). 우리는 신앙의 자유라는 절대 가치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그들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왕조는 종교의 자유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읽기만 해도 정치범 수용소 행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는 꿈도 꿀 수 없다. 지금 북한의 3만 8천 동네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하나씩 서 있다. 그러니까 7만 6천 개의 동상이 북한 전역에 서 있고, 각 가정마다 그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사람마다 그들의 얼굴이 담긴 뺨지를 달고 있으니 우상도 이런 우상이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문화대혁명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쫓겨났고 교회를 폐쇄한 곳만 4천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체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의 야성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7,80년대 한국교회는 밤새 부르짖는 성도들이 산골짜기마다 가득 찼었다. 그런데 나라가 잘살게 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한국의 계엄 사태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회복시키고 있다. 이제 성도들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목 놓아 부르짖고 있다. 어른들부터 젊은이들까지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한국과 세계의 젊은이들을 크게 일깨우는 역할을 감당한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는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다. 새벽 4~6시, 오후 4~6시에 하루 두 번 내 시간씩 기도하셨다. 그의 구국기도실 좌우 기둥에는 “조국이며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문구가 있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대한민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국민들이 저렇게 많으니!

minkyungjob@gmail.com

욥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혼돈과 혼란에서 현실로 초대하고, 새롭게 축복한다



“이거야 원, 하나님이 욥을 가스라이팅하는 거 같지 않아요?” 욥기 38-41장을 본문으로 한 내 설교를 들은 친구가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나는 이런 질문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특히나 치료를 중시하는, 치료 문화에서 사는 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항변이다. 나는 이 질문을 세 단계로 살펴보고 싶다.

첫째, 임상적 정신 건강 역학을 말씀에 적용하는 게 목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폭넓게 고려해 보겠다. 둘째,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욥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고, 과연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선의로 매핑하는 게 가능한지를 살펴 보겠다. 셋째, 욥기 속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살펴보고 욥이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표현하는 데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딱지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겠다.

목회적 고려

필립 리프가 ‘치료의 승리’라고 부른 맥락에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핵심 역학이 있다. 첫째, 관계적 역학과 권력 역학은 초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성경 속 인물은 “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찍

는 것부터 시작해서 본문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내적 동기를 찾아 행간의 의미까지 고려해서 읽는 것까지, 사람들은 마치 정신 상담 세션이 전개되는 장면을 보듯 성경 이야기를 대할 수 있다. C. 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이야기를 어린 이 이야기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가 ‘심리학의 부재’가 아니던가? 오늘날 성인 독자들은 본문에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면밀하게 심리학적 관점을 적용해 가며 이야기를 읽는다. 둘째, 성경을 적용하고 또 설교할 때,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우리는 말씀에 드러난 사실을 훨씬 넘어서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말씀이 알려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기도 한다.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지혜로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셋째, 우리는 대중 심리학의 사고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차세대는 엄청나게 온라인 상태이며, 그 상황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스스로도 엄청난 온라인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과도한 온라인 상태인 사람들과의 실제 관계에 몰두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는 이미 디지털화 되어버린 자

아감의 소유자들이다. 그들의 언어를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맥락 파악에 실패할 것이다. 이것이 대중 치료적 세계관에 따라오는 전제를 있는 그대로 채택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신은 온라인에서 그렇게 들었겠지만, 나는 지금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거든요.”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설교할 수 없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욥에게 닥친 하나님과의 무서운 만남을 살펴보자.

폭풍우

점점 흔하게 사용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일부 학대 관계에 존재하는, “미친 짓”을 가능하도록 하는 어떤 작용을 말한다. 이 용어는 1944년 영화 ‘가스라이트’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영화에서 남편은 새 아내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든다. 급기야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상상 속에 살고 있다고까지 확인하는 상태가 된다. 욥의 서사를 보면, 선의를 가진 독자조차도 하나님이 고통 받는 욥을 다루는 방식에서 가스라이팅을 의심하도록 유혹하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

〈12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할렐루야백화점

다이어리 | 시엔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i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주문: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New York · New Jersey

선교사의 집

후원: 917-599-3620
40-22-158st Flushing, NY 11358
Sunnyusany@yahoo.com

담임 목사 청빙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버브 지역에 위치한 뉴라이프교회는 복음주의 독립 교회로서 1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후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분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
- 이중언어(한국어, 영어)가 가능하신 분
- 미전도 종족 선교 비전이 있으신 분

제출서류(PDF로 제출)

- 이력서(영한, 가족사진 첨부)및 본인소개서(목회 철학, 비전, 은사등)
- 대학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 6개월 이내 설교 2개 동영상 온라인 링크 2개(일반설교, 선교주제의 설교)
- 추천서 2부(담임 목사나 신학교 교수)

서류 제출 마감 3월 29일 2025

주의 및 안내 사항

- 모든 서류는 오직 청빙에 관해서만 사용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된 서류는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여 전화 면접함
- 모든 서류는 PDF 첨부 파일로 E-mail: baegnewlife@gmail.com

뉴라이프교회 청빙 위원회

Chicago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헌츠빌 영락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저희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는 3대 목사님께서 20년간 은혜롭게 시무하신후 주님의 축복으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신바 제4대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 합니다

자격요건

- *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M. Div)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 * 목사 안수 후 Full-time으로 목회경험이 5년(담임목사/부목사 포함) 이상인 분
- * 미국에서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이중언어(한/영) 설교 및 소통 가능하신 분
- * 목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 나이 40세~55세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한국어, 영어 각 1부씩)
 -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 *목사 안수 증명서
 -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 *목회자 추천서 최소 2통(목회자가 직접 이메일로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한국어/영어 설교 2회분씩)(동영상 링크)
 - *신앙 고백서
 - *목회 철학
 - *목회 계획서
- [모든 서류는 공지된 이메일 (wellregina@hotmail.com) 로만 접수됩니다. 제출된 서류/자료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 및 통보

서류접수는 2025년 4월 30일 오후 6시 까지이며 1차 통보는 10일 후인 2025년 5월 10일까지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로는 받지 않으니 이메일 (wellregina@hotmail.com)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는 독립된 건물로써 자체 성전과 안락한 친교실, 주일학교 교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불같이 기도하고 예배할 목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Huntsville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헌츠빌 영락 장로교회

Email: wellregina@hotmail.com

Address: 7904 Whitesburg Drive, Huntsville AL, 35802, USA

상황화에 관하여

(1면에서 계속)

해답으로서 문화의 작동 방식

문화는 단순한 사회 관습과 전통이 아니다. 모든 문화는 언제나 구성원이 가진 삶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답은 우리가 살고 숨 쉬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세상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우리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을 바로잡는 길은 자유롭게 살고, 내 마음의 욕망을 따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화에 따라서 잘못과 해결책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 기독교는 어떤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에 관계없이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반영한다는 게 기독교의 주장이다. 물론 그 지식이 억압되고 있기는 하지만(롬 1:18). 동시에 기독교는 모든 문화가 어느 정도는 죄와 깨어짐으로 인해 왜곡되었다고 말한다. 그건 세상이 유한한 무언가를 악마화하여 문제로 바라볼 뿐 아니라 또한 유한한 것을 해결책으로 격상시키기 때문이다.

만약에 모든 문화가 다 선하지만 타락했다면, 우리는 단순히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문화를 더 "성경적"이라고 평가하고,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문화를 더 부도덕하고 사악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보수적인 문화는 종종 가족, 집단 또는 과거를 절대적 가치로 높인다. 그 결과 도덕주의와 외국인 혐오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 반면에 자유주의 문화는 개인과 발전을 절대적 가치로 높인다. 그 결과 개인주의라는 우상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가족의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가치는 모두 성경에서 나온다. 즉, 두 문화 모두 어둠과 빛의 혼합물이다.

모든 문화가 다 선하지만 타락했고 그래서 거기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면, 타협하지 않고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무슬림이 묻는 질문은 세속적인본주의자의 질문과 다르며, 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질문과도 다르다. 우리는 이해가 가능하고 설득력이 있도록 접근 방식을 맞춤화해야만 한다. 가족이나 집단을 고양하는 보수 문화권에서 강조해야 하는 점은 그들이 가진 집과 가족에 대한 갈망이다. 그리고 불관용으로 이어지는 도덕적 전제에 도전해야 한다. 개인적 자율성과 자기 발견을 우상화함으로 전통적 기관에 대해 깊은 회의주의를 가진 자유주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진정성과 자유에 대한 그들의 갈망이

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외로움으로 이어질 개인주의의 전제에 도전해야 한다.

누구나 상황화한다

하지만 복음의 상황화가 행여나 타협의 코드에 불과한 건 아닐까? 우리는 복음을 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누구나 자라난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에 한 문화에서는 "분명함"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모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양한 문화권을 거치는 선교사들은 이 사실을 항상 확인한다. 특정 지역에서 잘 통하던 방식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상황을 아예 초월해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기독교 진리의 형태나 표현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모든 교회가 다 어느 정도는(복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문화적 요소를 기독교에 유입시켰다.

개인주의 문화는 기독교의 공동체적 측면을 놓친다. 권위주의 문화는 양심의 자유와 은혜의 측면을 놓친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신의 문화권에 유입된 기독교가 문화적 표현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모든 표현과 구현은 이미 상황화된 상태이다. "나는 상황화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당신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상황화된 특정 기독교 관점을 강요하고 있다. 이 세상에 보편적이고 비역사적인 표현이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일반화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그는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한 인간으로 살았다. 그는 남자였고 유대인이었으며 노동 계층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대로 사역하려면, 예수님처럼 "성육신" 해야 한다.

더욱이, 기독교 관행은 반드시 성경적 형태 또는 모양 그리고 문화적 형태 또는 모양을 가져야만 한다. 예를 들어, 성경은 음악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한다. 문제는 특정 음악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특정 문화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교전"으로 여겨지는 아이작 왓츠의 찬송가도 그의 시대에는 "현대적"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정 언어를 선택하거나 특정 수준의 감정 표현, 심지어 설교 예화를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더 친밀한 사회적 맥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반대가 될 것이다. 나는 영어로 설교한다. 내 설교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잘 들리는 복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상황화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화로 삼은 가족과 패밀리 가이를 인용할 때, 누군가에게는 적절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암호같이 들릴 것이다.

오순절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언어와 방언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로 우리는 결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없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상대주의가 아니다. 돈 카슨이 말했듯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진리도 문화를 초월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된 진리라고 해서 반드시 문화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상황화는 시대를 초월한 참된 복음을 다양한 언어, 문화, 이야기, 상상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알고 있든 아니든,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메시지의 과도한 적응뿐 아니라 부족한 적응이 가져올 위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도한 적응의 위험은 특정 문화에 대한 이야기에 너무 함몰되어 복음의 도전적인 측면을 희석시킨다는 것이다. 부족한 적응은 전달하는 모든 이야기가 아래에 내재된 질문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오늘날 상황화의 방식

복음을 전하는 데에 "문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면, 올바른 상황화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먼저 우리 문화의 기본 스토리라인과 문화적 서사를 긍정하고, 도전하고, 달리 이야기(retelling)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가장 신실하고,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친구, 이웃, 도시와 지역을 잘 알고 주변의 문화적 이야기를 아는 것이다. 복음을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스토리라인, 즉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른 모든 문화의 스토리라인까지도 다 포괄하고 완성한다는 데에 있다. 다른 문화권에서는 인간이 창조한 무언가를 문제와 해결책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기독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죄에서 찾고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제시한다.

성공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우리 문화의 서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주장하는 건 행복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반영하고 인기를 얻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근면과 성취라는 좋은 가치를 우상화하고 게으름을 악마화한다. 이 이야기의 문제점은 성공해도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기독교 이야기의 아름다움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아니라 모든 문화적 서사에 내재된 진리를 감상하게 하는 능력까지 제공한다. 먼저 창조를 살펴보자. 기독교는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은 좋았다. 태초에 악한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이 한때 선했다면, 우리는 모두에서 선험의 잔재를 찾으므로 항상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기원은 선했다는 게 중요하다. 포르는 쉼의 선험이 잘못된 형태로 나온 것이다. 살인은 대리자와 권위의 선험이 잘못된 형태로 드러난 것이다.

상황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초래하는 파괴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것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참되고 더 나은 이야기가 쓰일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by Michael Keller, TGC

목회단상



여병현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호모 에라티쿠스

이슈 우화 가운데 토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모든 동물들이 낮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 떨어진 토끼의 머리 위에 도토리 한 알이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토끼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끼의 뒤를 이어 여우도, 시슴도 사자도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요란한 소리에 놀라 영문도 모른 채 이리저리 뛰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후 지친 동물들이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달리는거지? 대답은 모른다였습니다. 우리들도 숲속의 동물들처럼 세상이라는 숲 속에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최종 목적이 어디인지 명확한 좌표도 없이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장수를 꿈꾸며 일장춘몽 같은 행복한 파라도이스를 추구하며 숲속의 동물들처럼 지쳐 쓰러질 때까지 정신줄 놓고 뛰고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모 에라티쿠스란 "착각하는 인간"이란 의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이 닥쳐 올 것을 알면서도 "오늘은 아니야"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암이나 불치병이 우리집 대문 앞을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내 집 문을 열고 찾아들어 오기 전까지는 이웃의 이야기였고 다른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착각하는 인간, 호모 에라티쿠스가 우리의 삶에 문화로 자리잡고 100세 시대 운운하며 죽음이란 단어가 멀리 있는 것처럼 환각 상태로 우리를 몰아잡니다. 티비를 켜면 전문가들이 등장해 무병장수의 비결을 쏟아냅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백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에 관해서"라는 책을 출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책장 앞 진단을 받고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당황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외치는 목사님도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불치병 앞에서 당황해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사는 사랑하는 벗으로부터 말기 4기 간암 진단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건강 잘 챙기세요"라는 말이 덕담이 아니라 해머로 가슴을 치는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환상과 호모 에라티쿠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시 42:5). 사도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3,4).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 천국입니다.

cefyeeo@hanmail.net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Tel.(718)461-2810(Fax: 경음), (917)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Tel.(516)387-9940, 9942(EM), www.cpcof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학진 Tel. (718)706-0100, www.ny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진국 Tel.(718)267-9199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Tel.(718)265-2584, www.kfcb.org 14 G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저용 Tel. (516)620-2004 www.gcmny.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Tel.(347)513-1351, ch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Tel.(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Tel.(845) 359-1458, http://onnur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Tel. (718)762-2525, 5756, www.hyo 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Tel.(201)342-9194, sundogchurch.org 308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Tel.(718)229-286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St, Bayside, NY 11361
미주크리스천신문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미주크리스천신문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6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Tel.(718)88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Tel.(604)6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헌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o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Tel.(3277-1489, Fax: 3209-9343 Rue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성엽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Tel.(56)256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l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전교사: 임한곤 선교사 Tel.(52)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안셈(Ansem 1033-1109)

기독교는 눈물과 연관이 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 및 기도를 하던 중,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를 보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 또는 죄를 성찰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진리의 빛이 비취게 될 때, 더러운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될 때, 참회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안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27살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몽블랑의 산자락에 답답할 정도로 막아선 깊은 골짜기 마을인 이탈리아의 아오스타(Aosta) 출신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기만 한 그 구석진 자리까지 주님께서 한 청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자 수도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상속시키려는 귀족 가문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후 어

느 날 친구와 함께 알프스의 몽블랑 고개를 넘어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회의 백 수도원에 들어갔고, 당시 훌륭한 선생의 제자로 공부하던 중 원장이 세상을 떠나자 겨우 3년 만에 수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금식을 수행하여 몸은 수척하였지만, 항상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때때로 밤늦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곤 하였는데, 이는 성령의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죄인으로 죽음에서 부활되어야 할 영적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더러운 양심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세주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질문합니다. 그는 죄의 비참함과 그로 인한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

습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영성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볼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건 앞에 멈춰서서 자신을 질타하고 내재된 죄성을 응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면에 깊이 침잠된 죄성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진리를 가깝게 여긴 부분들을 성찰하고 아파합니다. 성프란시스 같은 분도 생전의 눈가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또는 그 은혜가 뜨겁게 역사하는 동안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이 평생토록 이어집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패역한 세상에 슬퍼하셨고, 장차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그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내다보며 슬퍼하셨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이처럼 자신을 정화하고, 죄의 유혹을 막아주는 힘이 됩니다.

안셈은 교황의 명에 의해 영국의 캔터베리 교회의 대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하지 않았으나 순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허락하였습니다. 영성의 높은 단계에 오른 분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직분이나 직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캔터베리 교회는 바티칸이 591년에 파송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는 캔트에 상륙하여 현지인들을 개종시켰고 결국은 왕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은 영국 성공회의 총본산이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거행하는 대관식에서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집행하는 분이 바로 캔터베리 교회의 대주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달프기만 했습니다. 윌리엄 왕은 형과의 전쟁에 필요한 거액의 돈을 요구하자 이를 성직 매매 행위로 여겨 거절하였습니다. 60세의

늙은이로 진리를 지키려는 이유로 몇 차례나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와 연합하는 것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보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나의 눈물을 들이마시게 하고 슬픔에서 나를 위로하소서, 그때 주께서 내게 오실 것입니다.

그는 동방정교회와 교황청이 신학적 문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앞장서서 양보하지 않고 신학의 바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즉, 동방정교회에서는 성자는 성부에서 나온다는 인정하였지만, 교황청이 주장하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요 20:22)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셈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끝까지 관철시켰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었던 그는 이런 영적 몸부림을 통해 진리를 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향해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안병권 목사

(가나교회/KAPC 남가주노회 노회장)



미국 수도 워싱턴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묘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에프 케네디의 묘지입니다. 이 묘지 앞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오르며 밤낮 비추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묘와 함께 또 유명한 곳은 무명용사의 묘지인데 지난 1,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서 전사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유해를 모아 합장한 묘이며 여기에 50톤이나 되는 대리석으로 묘비를 만들었는데 이 묘지가 무명용사의 묘지입니다. 무명용사, 사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들도 누구 못지 않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목사의 길도 사실 무명용사의 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며 가는 길이 아니지요. 특히 목회자의 길도 무명용사와 같은 길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야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무용담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23장 전체에 다윗의 많은 용사들의 멋진 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 기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아돌람 굴에 진치고 있고 적국인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휘 막사는 산성에 있고 블레셋의 지휘막사는 베들레헨 성 우물 근처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혼잣말로 "저 베들레헨에 있는 우물물을 한 번 마셨으면"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근처 있던 세 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블레셋 진영에 돌파하고 들어가 그 우물물을 떠왔고, 다윗은 그 물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떠온 것을 알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은 세 용사의 피와 같다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만 보면 여기에 왕과 신하, 대장과 부하 간의 충성과 인정 그리고 사나이들의 끈끈한 브로맨스와 같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군의 그날 한 말을 지나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수행한 용사와 그들의 눈물 어린 충성을 보며 그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세 용사

의 충성을 인정해 준 다윗의 자기 부하에 대해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이야기가 남자들의 끈끈한 충성에 관한 내용이라고만 안다면 굳이 성경을 볼 필요 없이 영웅전이나 전쟁사를 보면 아주 많이 나와 있

려고 이 길을 간 것은 아닙니다. 영광 보다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이 제일 성경에서 부담스럽고, 두려운 성경 구절은 하박국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3:17-18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

둘째로 세 용사의 충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것입니다. 강제로 떠밀려 할 수도 있지만 저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자원해서 간 것입니다. 충성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시 중에 회개시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고의로 죽게 만들었다)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

하고 하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세 용사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을 떠 온 것입니다. 알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칭찬이나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도 이런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충성하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용사는 사소한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삼하 23장에는 다윗을

리아의 아내 벣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벣세바의 할아버지이니 다윗은 아히도벨의 손녀뺨을 강제로 취한 것이고 손녀사위를 계락을 써 죽인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전체적 맥락을 보면 그 구조가 문학적 기법이 인클루지오(수미쌍광법)라는 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본문의 삼하 23장 다음 24장에는 다윗의 또 다른 죄 즉 하나님의 뜻을 어겨 인구계수하는 큰 죄에 대해 말하고 있고 21장에는 사울 왕의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 이야기는 인간의 죄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싸고 있는 동일한 이야기의 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22장, 23:1-7). 이는 성경의 저자 (하나님)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다윗의 잘못을 보여 주며 그러한 다윗이라도 하나님은 그와의 언약을 지키려고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용사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창세기 36:24입니다. "시브론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비 이 아니라 세 아버지 시브론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는 메시아의 족보가 아닌 에서가문의 족보인데 그 후손 가운데 시브론의 자녀 중에 아나비는 사람이 아버지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것이 뭐 그리 중요한 사건인지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철저히 영적인 가치에 비중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도 아닌 인간 가문의 족보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한 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 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선민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다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목회자의 길이 힘든 것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충성 때문에 힘들어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성을 배워야 합니다.
ganachurch@gmail.com

하나님의 은혜와 충성

사무엘하 23:13-17

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도 세 용사도 아닌 하나님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다윗과의 약속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 용사가 보여준 충성은 어떤 충성이었을까요?

세 용사가 보여준 충성은 다 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들의 충성은 고난을 각오한 충성이었습니다. 세 용사들은 물을 떠오는 장소가 어딘지 잘 압니다. 그리고 그곳을 갔다 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압니다. 세 용사가 물 떠온 우물은 블레셋군대의 지휘막사 즉 본부가 있는 옆에 있으므로 경비가 삼엄하고 병사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 용사가 전투실력이 좋아도 살아오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경비를 뚫고 그 야말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 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간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도 이렇 것 입니다. 사실 편하려고, 영화를 누려보려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

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솔직히 말씀하면서 아니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에게 양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믿음에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들어선 길이지만 힘드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정말 가능한지 마음에 새기면서 한 말일 것입니다.

주의 길은 봉사하라면 해야 합니다. 그래도 섬기려면 섬겨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역울함을 당하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충성은 상황을 뛰어 넘었기에 충성인 것이다. 헌신은 아픔을 뛰어 넘었기에 헌신인 것이다.

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시 51:11-12).

여기서 저는 왜 다윗은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는 그가 힘들 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다 보면, 광야나 굴에서 기거할 때 오직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 없고, 고난도 감내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라를 자기 손에 가지고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슬슬 귀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간섭이 싫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다 보니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힘들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림고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자랑하는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세 용사는 이름도 없고 그 활약도 전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마실 물을 떠온 이야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명의 세 용사는 사소한 일에 충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소한 일이 아닌 자기 일에 충성한 것입니다. 이 충성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사실 다윗은 이 이야기에서 멋진 왕으로 나오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삼하 23장에는 다윗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왕인지 그 죄를 곳곳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먼저 23장 마지막 절에는 헛 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하반절에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이 그의 악한 죄를 드러나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략가 아히도벨이 왜 그의 아들 암살품이 반역했을 때 그 이유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은 우

하나님의 관점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와 가르침은 단순히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그 본질을 보도록 요구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신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리학이나 사회학, 철학 등의 세속적인 학문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종종 신학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접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초월하는,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시각을 제공한다.

예배 회복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본질이다. 하나님을 예배

리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삶의 모든 회복이 시작되고 열매 맺는 것을 본다. 회복과 축복을 원하는가? 개인의 예배, 가정의 예배, 자녀들의 예배, 교회의 온전한 예배를 돌아보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영점 (Spiritual Viewpoint)의 법칙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영점의 가치라고 생각된다. 영점, 영적인 관점을 말한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현대 신학의 많은 연구들이 인간의 관점과 세속적인 기준에 의존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영적인

도 분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잘하는 사람을 택하여 세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하지 못한 자를 찾으신다. 다시 말하면 잘 뛰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잘 넘어지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난한자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이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된 자입니다” 하며 영적인 관점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찾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축복하셨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눈에는 영적인 관점이 선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태도이다.

접근 (Approach closer)의 법칙

접근이라는 것은 가까이할수록 더 커 보이는 영적 원리를

카이 나아갔던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예배였으며 또한 순종이었으며 믿음이 었다.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였고 단 위에 희생을 제물로 올리고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를 중지시키셨고 준비하신 수양을 이삭 대신에 주시므로 이삭은 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로 성공하는 자가 되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특혜가 무엇인가? 그에게로 가까이, 그의 말씀에 가까이, 그의 말씀하신 곳을 향해 가까이 나아갈 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이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하여야 한다. 가까이 나가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최고의 첩경이 무엇일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만약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혹은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하나님의 관점 회복

-예배의 회복, 영점, 접근, 신앙의 고도-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표현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신뢰를 이어갔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배가 된 축복을 주셨다.

욥 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하나님과 함께한 이들 가운데 예배를 빼 놓고 설명할 수 있는 이들이 없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에도 예배가 기준이 된 것을 본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왕이라고 하여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였을 때, 하늘 문을 닫으시는 것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되어있는지를 보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는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며, 이를 생명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

세상은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을 높이고 그들을 통해 성공을 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성취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신다.

한마디로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날 만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혼으로 세워지는 일에 관심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다. 영혼의 순전함이 무슨 의미인가? 영혼의 건강함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영적 관점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보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니, 가는 길

말하는 것이다. 확대라는 것은 커 보일 뿐이고 가까이 보일 뿐이지 실제로 크거나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접근은 실제로 크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 접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을 가까이했던 모세를 보면 감히 신을 신을 수가 없었고 열굴을 들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에 속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거침없이 이른 새벽에 출발하게 된다.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접근해 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희생을 받으시려고 하신 장소로 그는 나아갔다. 이삭이 누구인가? 100세에 이른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께 없는 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생의 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하자 그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접근하며, 그가 원하신 장소, 순종의 자리로 가

회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접근하는 힘이 있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도 (Raise the altitude)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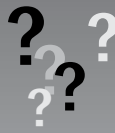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고도의 법칙이다. 신앙의 고도가 낮을수록 환경과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앙의 고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면 지상의 날씨 변화에 덜 영향을 받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다니엘처럼, 신앙의 고도가 높을 때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고도를 높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하기를 원하신다.

신앙의 고도를 높일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는 것을 보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우리 교회는 얼마전에 장모와 안수집사와 권사 투표가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어느 장모님은 12제자에서 탈락한 가룟 유다 대신에 맛디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 제비뽑기를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제비뽑기로 하면 어떠한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당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 제비뽑기 방법이 과연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팔로스 버디스에서 신장모

제비 뽑기 방법

A: 교회에서 중직자를 뽑을 때에는 보통 1주일 전에 주보에 장로, 집사 권사 투표를 위한 공동 의회 의제를 미리 광고하여 온 교우들에게 알리고 기도하고 투표를 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초대교회가 가룟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때에 유스도와 맛디아 두 사람이 천거되었는데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행 1:26)

유대인들에게 제비뽑기는 도박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을 배우는 구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두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이지 그들을 위해 던진 것인지 후보자의 이름을 쓴 작은 돌을 통에 넣어 흔들어 먼저 떨어진 돌의 이름이 피선된 것인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성경에는 제비뽑기 즉 추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 형태인 우림과 둠뎀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를 찾아내거나 직분자를 선택할 때에 그리고 전쟁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등을 하나님께 물을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과 교인들은 제비뽑기로 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뽑고 더 나아가 교단 총회장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구 박사가 쓴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이란 책을 보면 그는 정암 박윤선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계시시대에 그 특별히 세운 종들에게 꿈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실례도 있고 계시시대에 추첨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사용된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교회시대에는 그 방법은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더 나아가 교회시대에는 꿈을 숭상하는 자들과 추첨식 방법을 사용하는 자들은 모두 다 허망하여 진 것이라고 사도행전 주석에서 단언합니다.

특히 제비뽑기는 사도행전 1장의 부분과 관련하여 옛날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중에 하나였습니다.(레 16:8, 잠 16:33) 그러나 오순절 강림 이후에 이 풍속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밝히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명의 음식 봉사자를 뽑을 때에 성령강림 이후에는 제자들이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 방식으로 이 봉사자들을 선발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성경 계시가 종결된 지금에는 더 이상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학자 뱁겔이나 크리소스톰 역시 성령강림 이후에는 제비뽑기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계시로 충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66권 가운데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게 된다. 환경이 힘들면 믿음도 약해지는 것을 본다. 교회도 재정적으로 약할 때, 사역이 조심스러워지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은혜 받는 길을 열어 갈 수 있을 때, 더욱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이라도 주어질 것이다. 형편과 상황 처지에 맞추다 보면, 확실히 쪼그라들고 맥빠진 사역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사람, 큰 믿음으로 삶을 주님께 항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맺음말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것은 단지 신학적인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

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신앙의 고도를 높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신앙의 고도를 높일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음껏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라마단 금식 기도의 변화”

세계의 모든 무슬림권에서 3월 한 달간 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교권 사회에서 금식에 동참하는 무슬림들을 보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알라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여럿 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동일하지만, 무슬림의 움마 공동체도 라마단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며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공동체의 결속 강화를 맞보며 다양한 유익을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라마단 금식은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닌 사회적인 의례로 확대되어 왔던 것입니다. 움마 공동체로 결속을 다지는 무슬림 사회는 매년 라마단이 되면 육신 연약자나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필히 금식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사회적인 매장과 따돌림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년 무슬림들을 하나로 묶으며 관리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식이 바로 라마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금식에 동참하는 무슬림들 중에서 서서히 반발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의례와 전통을 자기 의지와 반대로 필수로 동참해야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순응하는 것은 예전에는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최근의 젊은 세대들의 반대 움직임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무의미하고 강제적인 전통을 거부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나 다 동일한 현상이지만 지난날 무슬림이 다수인 회교도 사회에서 이러한 모습은 거의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나 중동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열려있는 사회에서는 최근 젊은이들 중에 라마단을 회피하거나 의미 축소를 하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중동같은 지역의 돈 많은 부자들은 라마단 기간에 강압적인 금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여행으로 교묘하게 그 기간을 피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종교적이고 문화적으로 자리잡은 라마단이 새로운 시대에 젊은 세대의 도전에 직면하였고 앞으로 이런 변

화는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라마단 기간에 식당에 가면 많은 무슬림들이 가족이나 직장, 친구들 혹은 공동체 단위로 와서 그날 금식 해제를 앞두고 음식을 시켜 상위에 가득히 쟁겨놓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메스컴이나 가까운 모스크에서 제사장

법적으로 제한되었던 음식도 이제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해방된 자의 허탈한 모습이랄까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다 보면 라마단 금식이라는 전통이 많은 무슬림들에게 이슬람적인 신앙과 상관없이 단순히 공동체의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적 성장과는 거리가 멀게 보여지

는 낮 동안에는 음식뿐 아니라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침도 삼키지 못하며 그 외에 담배나 성행위조차 금지됩니다. 이렇게 강요된 실천은 개인의 신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형식적이고 주변 사람들 눈치보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형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행위에 식상



에 의해서 오늘 금식이 해제되었던 공식적인 선포가 올릴 때까지 가볍게 교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금식 해제가 되고나면 눈빠지게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 앞에 놓여진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서 금식을 경건하게 대하는 모습이나 종교적으로 그날 금식의 유익을 회상하려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즉,

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마단 금식은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일찌기 식사를 하고 해가 지고나서 또 음식을 먹는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해가 진 후에 금식 해제가 되고나면 과식하는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는 금식의 원래 목적인 절제와 영적 유익과는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해가 떠 있

한 젊은이들이 집단적으로 라마단을 거부하거나 남의 눈을 속여가며 회피하는 모습이 오늘날 무슬림들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어둠 속에 속박되어 있던 무슬림 젊은이들 사이에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빛으로 나오도록 귀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레전드 복서’ 라 쓰고 ‘천국의 챔피언’이라 읽는 조지 포먼의 생애

‘KO 마신’ ‘슬럼가에서 기적을 일궈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 최고령 헤비급 복싱 챔피언’. 지난 21일 세상을 떠난 복싱계의 전설 조지 포먼(76)의 이름 앞에 수식어들이다. 하지만 그가 사각의 링을 내리고 목회자로써 인생 2막을 열어젖힌 과정을 아는 이들은 ‘천국의 챔피언’이란 수식어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빈곤과 폭력으로 점철된 유년 시절을 보내며 15세에 학교를 중퇴한 그는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에서 만난 복싱 코치의 권유로 처음 글러브를 켜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큰 주목을 받은 포먼은 1973년, 당시 무패를 자랑하던 조 프레이저를 2라운드 만에 KO로 꺾으며 세계 헤비급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이듬해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첫 번째 전성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링 위에서의 첫 패배는 영화 같은 기적의 서막이었다. 포먼은 1977년 지미 영과의 12라운드 경기 후 락커룸에서 탈진한 채 심장마비 증세를 겪었지만 성공적인 수술을 받으며 극적으로 회복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며 목회자로서의 인생 2막을 맞았다.

포먼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교회를 세우고 길거리 전도에 나섰고, 열악한 환경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조지 포먼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했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운동을 가르치고 신앙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를 전하던 그는 청소년들에게 줄곧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란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비영리로 운영하던 센터로 인해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이다. 포먼은 은퇴 후 10년 만인 38세의 나이에 링으로의 복귀를 결심했다. 많은 이들이 무모한 도전이라 여겼지만, 그는 “복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며 강한 신념을 보였다. 그리고 1994년, 45세의 나이에 마이클 무어러를 KO로 꺾으며 다시 헤비급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복싱 역사상 최고령 챔피언으로 남게 된 영화 같은 기록이자 그의 끈기와 신앙이 만든 어닝 기적이었다.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결코 무서울 게 없었다”고 밝히며 감동을 전했다.

재기 후 챔피언에 오른 지 1년여 만에 다시 목회자의 길로 돌아선 포먼은 여생을 전도와 봉사로 채우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는 희망의 메신저로서의 여생을 보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목

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영화 ‘빅 조지 포먼’(2023) 중에서)

정익선 “미국에 210억 달러 투자” 트럼프 “현대차는 위대한 기업”

정익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총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정 회장을 소개한 뒤,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줄을 있고 있다며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향후 4년 동안 추가로 2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는 우리가 미국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루이지애나에 새롭게 건설될 제철소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시설은 1300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자동차 공급망의 자립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우리는 조지아주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개조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100만대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그는 “조지아주 서배나에 대한 우리의 투자 결정은 2019년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시작됐다”며 “우리는 이 획기적인 프로젝트의 완공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맞물려 더욱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고 했다.

정 회장은 또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산업의 미래를 함께할 더욱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저희의 최첨단 제조 시설을 방문해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직접 확인하시기를 정중히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회장의 이름을 직접 부른 뒤 “정말 감사하다”며 “이번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기업을 모실 수 있어 정말 영광”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현대차는 루이지애나의 새로운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이며 연간 270만 이상의 철강을 생산하고 1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의 미국 내 첫 번째 제철소가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서 앨라배마와 조지아의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공장에 철강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 공장들은 매년 100만 대 이상의 미국산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사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자동차 생산 분야 86억 달러, 부품·물류·철강 분야 61억달러, 미래 산업·에너지 분야 63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향후 4년간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 내 자동차 생산과 관련, 조지아주 소재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생산 역량을 20만대 증설해 미국에서 연간 120만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카니 총리, 4월 조기총선 승부수 “트럼프 위협 맞서 강력한 나라 만들겠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취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CBC방송에 따르면 카니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당하지 못한 무력 행위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캐나다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28일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캐나다가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를 무너뜨려서 캐나다를 집어삼키려 한다”며 트럼프에 맞서 강력한 경제와 안보를 갖춘 캐나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카니 총리가 메리 사이먼 총독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하면서 조기 총선이 성사됐다. 당초 선거법상 총선일은 10월 20일이었다. 선거를 6개월가량 앞당긴 것은 트럼프의 위협으로 반미 정서가 고조되면서 집권 자유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전 총리 쥘스탱 트뤼도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20% 포인트 이상 앞섰던 제1당 보수당은 ‘트럼프 역풍’으로 지지율 우위를 다 잃은 상태.

자유당 지지율(CBC 조사)은 올해 1월 초 20.1%에서 이날 37.5%로 치솟은 반면 보수당은 같은 기간 44.2%에서 37.1%로 떨어졌다. 캐나다 선거 통계 사이트인 338캐나다는 자유당이 하원 343석 중 절반이 넘는 178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지 여론조사업체 레거의 앤드루 에스는 “카니가 트럼프의 도전에 대한 정부 대응을 주도하며 확실히 초반 우위를 점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캐스팅 논란 영화 ‘백설공주’ 개봉 첫 주말 북미 1위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영화 ‘백설공주’가 캐스팅 논란 속에서 개봉 첫 주말 북미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다.



2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미국 영화진흥 통계 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서 백설공주는 지난 21일 개봉한 뒤 주말까지 세계 누적 입장권 수입에서 8730만 달러(약 1282억원)를 기록했다. 북미 수입은 4300만 달러로 1위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443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억7000만 달러(약 3966억원) 넘게 투입된 제작비를 고려하면 첫 주말 흥행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BBC는 평가했다.

이 영화는 디즈니의 앞선 장편 애니메이션 원작의 영화들처럼 개봉을 앞두고 캐스팅 논란을 빚었다. 주인공인 콜롬비아계 미국 배우 레이철 제글러(23)의 피부색이 동화 원작의 1937년작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과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인종적 다양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과 ‘원작을 변형할 필요는 없었다’는 반론이 충돌했다. BBC는 “이 영화는 논란에 직면하기 전까지 확실한 히트작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전에 정치·사회적 분열을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제글러는 소셜미디어에서 “나는 백설공주지만 그 역할을 위해 피부를 표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글러의 친팔레스타인 발언과 극중 여왕 역을 맡은 이스라엘 배우 겔 가돔의 친이스라엘 발언도 백설공주의 개봉 전 논란을 촉발했다고 BBC는 짚었다.

트럼프가 또?...이번엔 부활절 행사에 기업 후원 유치

백악관이 부활절을 맞아 다음 달 열린 예정인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에 기업 후원을 유치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CNN 등은 백악관이 외부 이벤



트 업체 ‘하빈저’를 통해 부활절 행사에서 홍보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저 7만5000달러(약 1억1000만원)에서 최고 20만 달러(약 2억9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면 달걀 굴리기 행사에서 로고 노출과 브랜드 홍보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다. 특히 20만 달러를 내면 기업 부스 설치 및 로고 배치와 더불어 기업 브랜드가 새겨진 간식 또는 음료 제공할 수 있다.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하는 브런치 행사에도 참석 가능하며, 백악관 기자회견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백악관 투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빈저는 자료를 통해 “(후원 업체가 되면) 소중한 브랜드 인지도와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다. 역사의 일부가 돼라”고 선전했다. 해당 업체는 2013년 공화당 보좌진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는 백악관의 가장 큰 연례행사 중 하나로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백악관 뜰에서 삶은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굴리는 게임이다. 1879년 러더퍼드 B. 헤이스 행정부를 시작으로 147년 동안 이어져왔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 행사에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행사 기획에 참여한 적 있는 한 관계자는 CNN에 “이것은 사업”이라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차레가 오면 달걀을 굴리고 선물 가방을 가져가는 그런 부활절 달걀 굴리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초에도 연방정부 개혁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백악관에 테슬라 차량 ‘모델S’를 전시하고, 그 자리에서 차량까지 구매해 논란이 됐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31. 서용호(1868-)

서용호는 1868년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후 그는 가야동에서 거주하였는데 지금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이 아난가 싶다. 그는 37세가 되던 1904년에 하와이 노동 이민을 꾀했다. 가족을 한국에 두고 그는 홀로 그해 '만주리아' 증기선에 올랐다. 그해 11월 2일 그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증기선을 탈 때 그는 영어로 그의 이름을 Soh Yong Ho로 표기하였으나, 하와이에 도착한 후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록에는 그의 이름이 Sur Yong Ho 또는 Shur Yong H라고 표기되었다. 그의 이름이 초기 하와이 한인감리교회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하와이로 이주한 후 기독교인이 된 것 같다.

제2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1907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얼 크랜스턴 감독의 사회로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었다. 서용호는 가와이섬에 있는 길나위아 지역과 가파 지역의 순회 전도인으로 파송을 받았다. 위의 두 지역에 각각 한인감리교회가 있었다. 그가 파송을 받은 그달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위의 두 지역 한인감리교회 교세는 아래와 같았다. 학습 교인이 8명, 세례 교인이 15명, 주일학교가 두 곳에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8명이었으며,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70명이었고, 주일 평균 출석한 주일학교 학생수가 60명이었다. 그해 현금한 액수는 7달러였고, 그중 교회를 위한 선교 현금으로 1달러를 지원하였고, 교회 확장부에 1달러를 후원하였고, 부인내지선교회에 1달러를 지원하였고, 기타 현금이 4달러였다. 건축 수리비로 43달러를 지급하였다.

1908년 1월에 보고된 교세와 비교하면 서용호가 1년간 섬긴 결과는 아래와 같이 교인수로 성장했으나 주일학교와 현금은 저조했다. 학습 교인이 43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6명 적은 9명이었고, 지난 한 해에 14명의 유아에게 세례를 주었고, 성인 3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주일학교가 두 곳에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이 3명이 적은 5명이었으며, 주일학교에 등록한 학생이 49

명이 적은 21명이었고, 주일 평균 출석한 주일학교 학생수가 42명이 적은 18명이었다. 그해 현금한 액수는 5달러가 적은 2달러였고, 그중 신설된 내지선교/교회확장 현금으로 2달러를 후원하였고, 교육부에 2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부인내지선교회에 지원하지 않았고, 교회를 위한 선교 현금 항목과 교회 확장부 항목은 없었다. 건축 수리비는 없었다.

1908년 1월 14일에 제3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하와이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그해 하와이 선교연회는 서용호를 하나마울루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그와 함께 이원S도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마울루 지역뿐만 아니라 리히 지역을 합쳐서 '리히 순회 지방'으로 삼고 이들 두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할 순회 전도목사를 두기로 하였지만, 하와이 선교연회 기간에는 지정하지 못했다. 그만큼 한인 노동자가 흩어져서 노동하는 지역에 비해 한인 교회 지도자가 부족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순회 지방 이름을 리히로 하였으므로 하나마울루 한인감리교회보다 리히 한인감리교회가 더 큰 교회 같다.

서용호가 파송된 그해 하나마울루 한인감리교회의 통계가 따로 없었고, 리히 한인감리교회가 합쳐진 '리히 순회 구역' 통계는 아래와 같았다. 학습 교인이 35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6명이었으며, 주일학교가 한 곳에만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은 7명이었으며,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23명이었고, 매 주일에 주일학교 학생이 평균 20명이 출석했다. 예배당은 한 곳에만 있었고, 750달러 시가의 예배당이였다. 그해 10달러를 현금하였는데 지출 내역으로는 내지선교/교회확장부에 5달러를 후원하였고, 교회 교육비로 2달러를 지급하였으며, 부인 내지선교회에 1달러를 기부하였고, 제너럴 연회비로 2달러를 지원하였다. 이상의 통계에서 볼 때 주일학교와 예배당은 리히 한인감리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년간 섬긴 서용호의 사역을 이듬해에 열린 하와이 선교연회에 제출한 보

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교회가 합쳐진 통계로만 비교할 수 있다. 학습 교인은 작년과 같이 35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19명이 늘어나 25명이였다. 그리고 지난 1년간 15명이 세례를 받았다. 주일학교가 한 곳에 더 개교하여 두 곳에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은 작년과 같은 7명이었으나,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50명이 많은 73명이었고, 매 주일에 40명이 많은 60명의 주일학교 학생이 출석했다. 예배당은 작년과 같이 한 곳에만 있었고, 750달러 시가의 예배당이었는데 작년에 없었던 예배당 개조비로 400달러를 지급하였다. 그해 작년보다 4달러가 많은 14달러를 현금하였는데 지출 내역으로는 내지선교/교회확장부에 작년보다 2달러 적은 3달러를 후원하였고, 교회 교육비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부인 내지선교회에 1달러 많은 2달러를 기부하였고, 작년에 제너럴 연회비로 2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아예 항목이 없었다. 작년에 지원하지 않았지만, 외국선교 교회현금과 외국선교 교회학교현금으로 각각 1달러를 현금하였고, 내지선교/교회 확장부의 주일학교 현금으로 2달러를 현금하였으며, 주일학교부 교회현금과 주일학교부 교회학교 현금을 각각 2달러씩 현금하였고, 미국성서공회에 1달러를 현금하였다. 이상의 통계에서 볼 때 지난 1년간 교회가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4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1909년 3월 3일부터 4일간 호놀룰루 제일 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그해 오아후섬에는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외에도 에와 한인감리교회, 모코리아 한인감리교회, 와일누아 한인감리교회 그리고 와이파후 한인감리교회가 있었다. 감독 찰스 W. 스미스 박사는 서용호를 오아후섬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했다. 그 외에 하와이 선교연회는 민찬호를 목사로 파송하였고, 홍기H, 임춘H, 안원규 이상 3명도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서용호가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에 권사로 파송될 때의 교세는 아래와 같았다. 학습 교인이 26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63명이었으며, 주일학교가 두 곳에 개설되었고, 교사와 직원이 13명이었고,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120명이었으며, 매주 주일학교에 출석한 평균 학생수는 100명이였다. 지출 총액은 18달러였는데 이중 해외선교 교회현금이 2달러였고, 내지선교/교회확장 교회현금이 4달러였으며, 내지선교/교회확장 교회학교 현금이 2달러였고, 교회 일반 교육 현금이 1달러였고, 어린이 교육기금이 1달러였고, 교회학교 교회 현금이 1달러였고, 미국성서공회에 3달러를 기부하였고, 부인해외선교부에 2달러를 후원하였으며, 부인내지선교회에 2달러를 후원하였다. 그리고 예배당이 2동 있었고, 두 예배당의 시가는 6,100달러였으며, 1,000달러 시가의 사택이 한 동 있었고, 그해 예배당과 사택을 수리하는데 1,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듬해 1910년 하와이 선교연회에 보고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통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이 교회가 상당히 성장했다. 학습 교인이 작년보다 16명이 많은 42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13명이 많은 76명이었으며, 주일학교가 한 곳이 더 많은 세 곳에 개설되었고, 교사와 직원이 3명이 많은 16명이었고,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30명이 많은 150명이었으며, 매주 주일학교에 출석한 평균 학생수는 28명이 많은 128명이였다. 작년에 없었던 엠피스 청년부를 두 곳에 신설하였고, 엠피스 청년부에 등록된 학생이 69명이였다. 지출 총액은 작년보다 50달러가 많은 68달러였는데, 이중 해외선교 교회현금이 1달러 적은 1달러였고, 작년에 지급한 내지선교/교회확장 교회현금 항목과 내지선교/교회 확장 교회학교 현금 항목은 없어졌고, 교회 일반 교육현금이 작년과 같이 1달러였으며, 어린이 교육기금 항목은 없어졌고, 교회학교 교회 현금이 2달러 많은 3달러였으며, 미국성서공회에 2달러 적은 1달러를 기부하였고, 부인해외선교부에 후원하지 않았으며, 부인내지선교회에 작년과 같이 2달러를 후원하였으며, 작년에 하지 않았던 흑인보조회에 1달러를 후원하였다. 그리고 작년과 같이 예배당이 2동 있었고, 두 예배당을 합쳐서 시가가 작년보다 200달러가 많은 6,300달러였으며, 1,000달러 시가의 사택이 한 동 있었고, 그해 예배당과 사택을 수리하는데 작년보다 700달러가 적은 300달러를 지급하였다.

1910년 3월 16일부터 4일간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5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서용호는 오아후섬 아리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달에 하와이 선교연회는 김유순을 아리 한인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와이파후와 와하아와에 있는 한인감리교회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와히파후 순회 목사'로 파송하였다. 그러므로 순회 목사가 주일에 아리 한인감리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을 때 서용호 목사가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주일예배를 인도해야 했고, 특별한 경우 심방도 불가피했다.

서용호가 아이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되었을 때 본 교회 교세는 따로 없었고, 아래와 같은 '와히파후 순회 구역' 통계만 있었다. 학습 교인이 36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21명이었으며, 두 곳에 주일학교가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은 5명이었으며,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54명이었고, 평균 38명이 매 주일 주일학교에 출석하였으며, 엠피스 청년회가 한 곳에 있었고, 엠피스 청년회에 등록된 학생은 15명이였다. 예배당이 한 동 있었고, 그 시가는 600달러였다. 엠피스 청년회와 예배당은 와이파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지출한 현금은 16달러였고, 이 중에 해외선교부 교회 현금이 1달러였으며, 해외선교부 주일학교 현금이 12달러였고, 교회 일반 교육 현금이 1달러였으며,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주일학교 교회현금이 2달러였다.

1911년 교세 통계와 비교하면 지난 1년간의 실적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이 한인감리교회 교세가 따로 없어서 다음과 같이 '와히파후 순회 구역' 통계와 비교할 때 성장했던 것 같다. 학습 교인이 11명이 적은 25명이었고, 세례 교인이 9명이 많은 30명이었으며, 지난 1년간 4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12명이 세례를 받았다. 한 곳이 많은 세 곳에 주일학교가 있었고, 주일학교 교사와 직원은 1명이 많은 6명이었으며, 주일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2명이 많은 56명이었고, 평균 38명이 매 주일 주일학교에 출석하였으며, 엠피스 청년회가 한 곳이 많은 두 곳에 있었고, 엠피스 청년회에 등록된 학생은 13명이 많은 28명이였다. 예배당이 작년과 같이 한 동 있었고, 그 시가도 작년과 같은 600달러였으며, 작년에는 없었지만, 예배당 수리비로 24달러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지출한 현금은 12달러가 많은 28달러였고, 이 중에 교회 일반 교육 현금이 작년과 같이 1달러였으며, 주일학교 교회현금이 1달러 적은 1달러였고, 작년에 보조한 해외선교부 교회 현금 항목과 해외선교부 주일학교 현금 항목은 없었고, 작년에 하지 않았던 항목으로 내지선교/교회확장 현금으로 25달러를 지원했고, 미국 성서공회에 1달러를 후원하였다.

1911년 1월 17일부터 이틀간 에드윈 홀트 휴즈 감독의 사회로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6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는 서용호를 파송하지 않았다.

제7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1912년 3월 23일부터 그달 25일까지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있었다. J.W. 배쉬포드 감독은 서용호를 가와이섬 엘리엘리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하였다. 그런데 하와이 선교연회가 이선일 목사의 지도하에 엘리엘리 한인감리교회 임시 목사를 파송하기만 하고 임시목사를 지정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분간 서용호가 예배뿐만 아니라 목회 전반을 담당해야 했다.

그런데 1913년에 개최한 제7회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록을 찾지 못하여 서용호의 사역을 가늠할 수 없고, 1913년 하와이 선교연회록뿐만 아니라 1914년 하와이 선교연회록도 찾지 못하여 그의 파송 여부를 찾지 못했다. 그 후 그의 이름은 하와이 선교연회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그림교제및기도회: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전도: 매주(목) 오후 4:00-7:00 Tel: (773) 821-1112, estross@yahoo.com 603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말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다윗 The word Korean Presbyterian church 42 N 1st street, Pacific Beach WA 98571 주일예배: 오전 11:00 Tel: (360) 937-7271, blescolle@yahoo.com 3806 Country Club NW, Olympia, WA 98502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8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8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벤틀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전양) 오후 1:45 다민족: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지, 유년, 청소년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609) 435-4579, www.bostonlcrea.org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담임목사: 차용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Tel: (703) 581-9235, www.koreapcc.org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 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244-6446, Fax: (907) 2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오광균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 213-1200, (254) 699-3176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 636-6675, www.lacon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칼빈의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에 관한 글들

IV.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

1.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들

- 1)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되는 첫째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 2)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행위 때문이다
 - 3) 셋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1)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아는 자만 신성한 이름을 자랑할 수 있다

그분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성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가! 사도 바울은 “어지러운 욕망에 사로잡힌 후에 후회한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없다고 단언한다(엡 4:22, 24). 그런 사람들은 그릇된 것들을 높이 치켜든 채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위장한다. 그들이 무슨 소리를 지껄이든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은 그분께 큰 해악을 끼친다. 복음은 허로 외치는 교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 복음은 다른 분 아들처럼 이해와 기억을 통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가슴 속 깊은 곳에 그 자리를 잡는다. 그렇지 못하면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이 아닌 것을 마치 자신들의 실상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2) 교리의 활동은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영혼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우리가 이 교리에 관하여 먼저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열매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마음의 가장 깊고 후미진 곳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교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 교리가 우리를 변화시켜 그 교리의 본질을 닮게 하는 과정도 살펴야 한다. 허끝에 복음



의 소식을 몇 마디 답아 굴리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잘못 오용하는 잡담가들을 증오하는 것은 항상 타당한 일이다. 온갖 철학적 교훈들이 지닌 보잘 것 없는 힘에 비교하면 영혼 안에 미치는 그 교리의 위력은 수만 배나 되는 위력을 갖는다.

(3) 우리가 지향할 목표는 완전함이 아니라, 그것을 향한 노력이다

이 지점에서 칼빈은 루터와 멜랑크톤과 같이 재세례파의 완전주의를 비판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피력한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완벽한 윤리적 상태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성이라는 표준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인간들이 교회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 그들 가운데 완벽에 도달한 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진보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별로 진보한 것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우리 눈앞에 두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성을 향하여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한 내용의 일부를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부분들은 우리의 공상에 내 맡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다.

(4) 주님의 방법으로 중단 없는 전진을 요구하는 일이다

언제나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정직이란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을 의미한다. 온갖 허식으로부터

터 자유로운 마음이며, 이중적인 마음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의 처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가운데 그 누구도 마땅히 품어야 할 열심을 품고 이 길을 서둘러 갈 만큼 강하고 단호한 사람은 없다. 우리를 가운데 대부분은 너무나 약해서 흔들리고 절뚝거리다가 결국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일단 시작한 여행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추구하자. 이와 같이 연약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다가 마침내 고향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방법으로 전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 우리의 진보가 보일 것 없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현실이 우리의 욕구와 부합하지 않고 오늘이 어제보다 못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상실된 것이 아니다. 다만 순수하고 참된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 눈을 뜨자. 우리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분투하자. 허황된 아부로 우리 자신들을 부풀리지 말고, 우리가 범한 악행에 대하여 핑계를 대지 말고 목표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자.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자.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절대적인 선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선함을 얻기 위해 계속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우리는 그 완전한 선함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 날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 모임 이야기 (3)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한부모 가족수양회가 있을 때면 엄마를 따라와 한쪽 옆에서 예배 드리고 물놀이도 하던 아이들이 어느덧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란 그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교회에서 주관하는 해외 아웃리치에 가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항공료가 포함된 참가비는 그들 가정경제에는 지극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자녀는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작년에 참가했던 아웃리치에 대한 보고 겸 올해의 참가비를 위한 선교편지를 나누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세명의 십대 자녀를 둔 어머니는 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모르는 채 눈을 딱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사역자가 '아이들이 너무 열심을 다해 교회봉사를 하는데 왜 보내지 않느냐'고 하며 자신이 일정 금액을 후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그 어머니가 의사를 물으니 엄마 형편을 알기에 내색을 안하고 있던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정말 가도 돼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라며 용감하게 믿음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제나 부모없이 오로지 주님 한 분 바라고 살았던 그 어머니는 참가비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준비되는 것이 없고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웃리치란 '선교를 겸한 봉사활동'으로 보통 체류기간이 1, 2주인 경우 단기선교라는 용어대신 사용되는 것입니다. 십대 청소년들이 현지에 가서 대담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곤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복음성이 가사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고 성인이 되면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선교에 직접, 간접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니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밖에 이런 봉사활동의 이점은 대학 입학원서에 기입할 경우 입학하기를 받는데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웃리치에 틈틈이 참가했던 한 멤버의 아들은, 학과 성적도 물론 우수했지만, 명문 기독교 사립대학으로부터 집으로 오고 가는 항공료까지 포함한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여유가 되는 가정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운동 혹은 예능등의 과외 활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그러한 혜택이 여의치 않은 자녀들의 대학입학에 보탬이 된다는 아웃리치인 만큼 참석이 가능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경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정기모임 때, 참석자들에게 산을 넘는 발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금 모음에 기여이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난 십수 년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오는 싱글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금, 은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키우고 있으니 무엇보다도 확실한 노후 보함에 가입된 것이며 누구보다도 부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성경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913-4498,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0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광-일 예배): 오후 2:0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10)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sa.org 170 Birmit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4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일어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 854-4010 / bible@bdc.org / www.bd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저녁 금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Tel: (213) 388-1927 / www.wmcc.org / worldmissionchurch20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8
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Rang Church)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모임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말)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장로교회협동목사) 성경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복음성당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com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온라인예배: 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아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수-요 예배: 오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분당) E 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 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p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평강교회 담임목사 :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과 교제: 오후 1:00 TEE-동요로운 삶(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거리전도: 오전 9:00 TEE-성경을 한눈에(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어느 사성 장군의 부대 지휘 구호

아주 우연히 어느 사성 장군(합참의장)의 부대 지휘 방침과 철학이 담긴 부대 구호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육사출신이 아니면서 대한민국 군인의 최고위직인 합창의장에 오른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자리에 오르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일이었지만 그분은 당당히 그 소

중한 자리에 올라 군인으로서의 꿈을 달성하고 그분을 아는 많은 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스토리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인격이 훌륭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고 지휘관으로서의 지휘 능력이 탁월하였겠지만 그분의 부대 지휘 철학이 담긴 부대 구호가 그가 통

솔하던 군부대를 탁월하게 하고 정평이 나게 한 것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종종 그 부대의 그 구호를 반복하여 교육 하곤 하는데 교우들과 교역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어떤 집단이든지 적용이 가능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성 장군의 군부대 지휘의 철학이 담긴 구호는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이며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것은 “비비 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칭 하자!”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비교하지 말고 / 비-비평하지 말고 / 불-불평하지 말고 / 용-용서하고/ 감-감사하고 /미-미소 짓고 /인-먼저 인사하고 /칭-칭찬하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비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에서 멀어지는 것은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을 불만을 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려면 용

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족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밝게하려면 미소 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웃과 좋은 만남을 가지려면 먼저 인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칭찬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주관적 자기 철학은 물론 공동체의 규범이 될만한 주관적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처신하면 성공적인 인생은 물론 공동체를 세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가훈이 필요합니다. 학교에는 학훈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구호가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사성장군의 부대 지휘 철학이 담긴 그 부대의 구호를 소개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군의 부대 지휘 철학이 매우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철학이 가정은 물론 교회에도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회사나 기업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한 비판계적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 이후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비대면적인 시대 상황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원만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이웃을 기피하고 꺼리고 외면하는 시대입니다. 가까운 이웃들은 물론 가족이나 교인들 간에도 바람직하고 성숙한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서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감정적 표출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 사성장군의 철학이 담긴 그 부대의 구호를 재음미해 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비비 불불 하지 말고 용감 미인칭 하자!”

cyd777@hotmail.com



LA비전교회 고주열 신임 담임목사 부부와 김대준 이임목사 부부

LA비전교회 담임목사 이취임감사예배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실하게 사명 감당할 것”

LA비전교회 담임목사 이취임감사예배가 23일(주일) 오후 3시에 거행됐다. 김대준 이임목사는 “부족한 사람 이해해주시고 어쩔잖은 걸음 함께 동행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다. 마4:16 말씀에서 사명과 어둠의 의미를 잘 몰랐다. 어느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으신 것이 다가왔다. 못 박히신 것이 느껴졌고 그 은혜가 나를 살렸고 빛을 비춰주셨다. 선교와 목회를 나 자신이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정을 지나면서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

다. LA비전교회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주열 취임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감사와 베풀이다. 부족한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종의 길을 허락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선택에 부합하도록 하나님과 교회앞에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겠다”고 말하며 “변함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 LA비전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전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서종학 목사(SBC한인 남가주 지

방회장/파사데나주님의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1부예배는 김옥자 전도사 기도, 성가대 찬양, 김영하 목사(SBC 한인총회장/남가주살롱교회) 설교로 이어졌다. 이날 김영하 목사가 ‘함께 행하소서(에스라 10: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에스라는 성전중심, 말씀중심의 신앙생활을 중시했다. 그러려면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이임식은 김재왕 장로(LA비전교회)가 이임목사 소개, 김대준 목사의 사역의 발자취 영상, 현병훈 장로(GMCC 선교회 대표) 치하의 말씀, 성형철 장로(LA비전교회) 감사패 증정, 김대준 목사 인사로 이어졌다. 취임목사 취임식은 김재왕 장로가 취임목사 소개, 목사 취임 문답, 기도, 선언, 취임패 증정, 강요섭 목사(말리위대 학교 종교학 교수,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루터신학교 교수/PCUSA 선교사)의 취임목사와 교인들에 대한 권면, 김기대 목사(평화의교회/뉴스엠 논설위원/영화평론가) 축사, 한신동문목회자 축하, 고주열 목사 감사의 인사로 이어졌다. 이날 예배는 고주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최형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최형만 목사 초청, 새생명축제

“내 재주로 살던 인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간 돼”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주제로 새생명축제를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최형만 목사(동춘교회 부목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가졌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노창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21일(금) 첫 번째 집회에서 최형만 목사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87년도에 개그맨으로 데뷔하고 30여년간 방송을 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예전에는 내 재주로 밥을 먹고 살던 인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내 인생은 소위 뜬보잡(뜬도 보도 못한 잡념)으로 살았다. 방송국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는 선배의 방송출연 추천에도 불구하고 담당 PD의 단호한 거절이었다”며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본다면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

말씀을 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예전에는 내 재주로 밥을 먹고 살던 인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내 인생은 소위 뜬보잡(뜬도 보도 못한 잡념)으로 살았다. 방송국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는 선배의 방송출연 추천에도 불구하고 담당 PD의 단호한 거절이었다”며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본다면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

〈박준호 기자〉



이석부 코리언 코커스 회장은 화재당시 전소된 알타데나 umc 화재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UMC 칼팍연회 한인교회연합회 LA 산불 구호 기금 전달

연합감리교 가주태평양연회 한인교회 연합회(회장 이석부 목사)는 지난 2월 24일 패사디나 소재 연회본부를 방문하여 도티 에스코베도-프랭크 감독에게 남가주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한인 교회들과 한인

목회자가 섬기는 타인종 교회들이 모금한 17,597달러의 성금과 725 달러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전달했다. 지난 1월 초 화재가 발생하자 이석부 연합회 회장은 LA 산불 재난 극복회 회장은 LA 산불 재난 극복회와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기도회를 줌으로 개최했고 캘팍 연회의 에스코베도-프랭크 감독과 오하이오 연회의 정희수 감독 미 전역에서 80명 이상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참여했다. 이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구호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모금 운동을 통해 연합회는 총 27,322 달러를 모았으며, 이 중 9,000 달러는 한인 피해자 3 가정에 직접 전달하였고, 나머지 17,597달러와 이승필 목사가 담임하는 토랜스 제일 연합감리교회에서 모은 725달러 상당의 기프트카드는 캘팍 연회에 전달하여, 광범위한 지역 사회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토랜스 제일교회는 현금 1,145 달러도 체크로 보내왔다.

〈정리: 박준호 기자〉



지난해 열린 장학생 지원 및 소형교회 목회자 후원 과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의 단체사진 촬영하는 모습

소형 교회 목회자 후원 및 영적 세미나 열린다

새생명선교회 주최, “이민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선교적 교회”

새생명선교회(대표 김은영)에서는 오는 4월 7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새생명비전교회(강준민 목사)에서 ‘장학생 지원 및 소형 교회

목회자 후원과 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영적 세미나’를 개최한다. KCMUSA(이사장 민종기 목사) 1대 재단이사장이었던 박희민 목사가 이끌던 새생명선교회는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소형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나섰고 장학생들을 선발해서 소형교회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매해 약 10만 불 정도를 한인사회에 후원해 왔다. 이번 2025년 장학생 선발 및 소형교회 목회자 후원과 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영적 세미나는 지난 해 겨울부터 지역사회에 알려져 지원자를 받고, 올 1월 장학생 3명과 목회자 50명을 선발한다 있다. 이날 행사는 예배와 오전 강의가 끝난 후 먼저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데 장

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Hyun Bang(Westminster), Caleb Kang(Fuller), Byron Bae(Talbot) 등 3명의 신학생들이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50명의 목회자들에게 일인당 1,500~2,000불(타주 및 해외 목회자) 가량의 후원금이 수여된다. 소형 교회 목회자는 총 106명 지원자 중 50명이 선발되었는데, 타주 및 해외의 16명, 캘리포니아 34명으로, 해외의 경우는 캐나다 및 독일의 한인 목회자도 지원, 선발됐다.

새생명선교회의 김은영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재정적인 지원과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고, 선배 목회자들의 경험과 강의를 통해 교회 성장의 새롭고 창의적인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는 “이민자들을 제자로 세우는 선교적 교회”로 개최 예배 설교는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 세미나는 △노창수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 △권혁빈 목사(씨드교회)의 디아스포라 사역 △김우준 목사(토랜스조은교회)의 설교사역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의 이민목회와 위기관리 △민종기 목사(충현선교회) 원로, KCMUSA(이사장)의 목회리더십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의 영성훈련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기사제공: 새생명선교회〉

미주복음방송, 2025 ‘나눔On 프로젝트’

Pasadena Community Foundation에 산불 피해지원금 전달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3월 18일 오전 11시, Pasadena Community Foundation(PCF)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 50,000달러를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최근 Eaton 화재로 피해를 입은 Altadena 및 Pasadena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PCF가 설립한 'Eaton

Fire Relief & Recovery Fund'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금은 미주복음방송이 주관한 '2025 나눔On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된 총 175,000달러 중 일부로,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활용되었다. 미주복음방송의 이영선 사장은 직접 PCF

를 방문하여 Jennifer DeVoll CEO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많은 가정과 이웃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부금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CF는 Pasadena, Altadena, Sierra Madre 지역에서 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비영리 단체다. PCF의 Jennifer DeVoll CEO는 “후원에 함께해 주신 많은 한인 교회들과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금된 기금은 즉각적인 필요, 중기적 필요, 장

동양선교교회, VBS 프로그램 지원 강습회

영어 버전 히즈쇼 VBS프로그램 제작 무료배부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히즈쇼(대표 백종호)와 협력으로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4시 30분까지 펜데믹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교회학교를 돕기 위한 특별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본 행사에서는 성경학교 강습회 및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여 한인교회 학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한인 교회들의 필요를 반영해 영어 버전 히즈쇼 VBS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200불

상당의 디렉터 KIT(2GB 디지털콘텐츠 찬양율동, VBS진행 가이드, 디자인자료 등)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은 아이들이 15~20명 이하이고, 전담 교역자가 없거나 교사수가 4명 미만인 소규모 교회들로, 이들이 부담 없이 VBS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회들은 동양선교교회 및 히즈쇼 홈페이지(<https://omc.org>)에 공지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오는 4월 26일(토) 오후 2시 동양선교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는 VBS 강습회 및 프로그램 전달식에 참석하면 된다. 또한,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 직접 참석이 어려운 한인 교회들을 위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교회들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자세한 문의는 (323)466-1234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TCI 연구소 주관 Debriefing Camp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TCI 연구소 주관하는 Debriefing Camp 열려

TCI 연구소에서는 추구하는 3가지 주제 발표

TCI 연구소(디렉터 이병구 박사)에서 주관하는 Debriefing Camp가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부에나파에 위치한 더블트리힐튼호텔에서 열렸다. TCI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Debriefing Camp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 철학박사과정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Asian American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첫날인 19일(수) 오후 3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병구 박사는 “2013년 2월 인도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하게 되었을 때 현지에서 했던 모든 것을 두고 나와야 했고, 현지에서 추방이 되었을 때 파송교회에서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추방이 되었던 것으로 오해를 했다. 더군다나 추방이 된 이후 미국에서 사역을 하기위해 준비를 하던 중 파송교회로부터 파송이 철회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 파송은 하는데 추방 등 위기상황에 처할 때는 대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교사는 위임받은 사명가지고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때 케어가 안되는 것을 보면서 디브리핑 캠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TCI 연구소에서는 추구하는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성이다. 어떠한 환경 문제와 지리적 문제를 초월해서 정확한 자기인식과 자기존재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둘째째 이민자로서 가지는 트라우마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영적 돌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정신건강 영적 포매이션을 가지고 만들어가고자 한다. 셋째 이민자로서 삶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학습공동체를 구상하고자 한다.

한편 이날 Young Lee Hertig 박사 (ISAAC Executive Director)가 ‘아시아아메리칸 여성지도자’, 김상일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영적 돌봄을 통한 미주한인들의 코비드19 이후 정신건강 회복: 이야기와 연결의 힘’, 유희주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디브리핑 진행’에 대해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LA 동부교협, 인공지능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LA 동부교회협의회(회장 최현규 목사, 주임처치)가 주최한 인공지능(AI) 세미나가 3월 20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치노힐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학 목사(LCC 주님의교회)가 강사로 나서 목회자들에게 AI 활용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사용하고 있던 참석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정리된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AI가 목회와 성경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희년 정기총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되길”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총회장 진유철 목사)는 희년 정기총회를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했다. 순복음세계선교회 총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는 “이번 50차 북미총회가 북미총회의 출발점이었던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이번총회를 통해 50년 전 선교의 불씨가 타오르게 시작했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유철 총회장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충성을 다하는 북미총회원 한 분 한 분께 마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드린다. 북미총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눅 4:19)’하는 것이다. 이번총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새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24일(월) 오후 4시30분 개회예배 및 목사안수식을 가졌으며 저녁 7시30분에

는 이영훈 목사 초청 축복성회를 가졌다. 기쁜소리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진유철 목사의 사회로 열린 축복성회는 안현 목사(직전총회장)가 대표기도, 윤호용 목사(부총회장/알래스카 순복음교회) 성경봉독, 연합성가대 특송으로 이어졌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주안에 서라(렐 4: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첫째 주안에 굳게 서야한다. 둘째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셋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희년을 맞이한 북미총회 회원들과 회원교회,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바라며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는 삶하는 자들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말씀에 이어 이영훈 목사가 합심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축복성회를 마쳤다. 둘째날 오전에는 정기총회를 가졌으며 복지재단 퇴직연금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오후에는 각 지방회 별로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대흥장로교회 설립 48주년 부흥회

“계산하지 말고 사랑과 삶을 드리는 성도와 교회 되자”

대흥장로교회(담임 김정훈 목사)는 설립 48주년 부흥회를 21일(금)부터 23일(주일)까지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가졌다. 대흥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정훈 목사의 사회로 23일(주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마지막 날 부흥회는 김교진 장로 기도, 할렐루야찬양대 찬양으로 이어졌다. 이날 고태형 목사는 ‘계산을 넘는 사랑(막 16:1-8, 14:1-11)’이라는 제목으로 “북미전역에 이민교회들이 많이 있고 교회마다 헌신자들이 많다. 이는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전수된 결과”라며 “일제강점기 시절 목을 갖지 않았던 한국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신실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

녀들이 성인이 된 후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된 것을 보게 된다. 또한 본문에 나온 여인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미안마 한센인 사역을 하던 당노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선교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며 나아갔더니 시력이 회복이 되고 사역을 더 힘 있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을 넘는 사랑임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지난 48년 동안 대흥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많은 헌신자가 나왔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여인들처럼 향유를 깨뜨린 여인, 환란과 투옥,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을 갔던 바울처럼,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사랑과 삶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부흥회는 고태형 목사가 결단의 기도를 인도한 뒤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고태형 목사가 말씀을 전한 뒤 찬양인도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평안교회 창립 50주년 부흥회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는 창립 50주년 부흥회를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노진준 목사(Preaching Coaching Ministries 공동 대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일정은 28일(금) 저녁 7시, 29일(토) 오전 6시, 오후 6시, 30일(주일) 오전 8시30분, 11시

▲ 문의: (213)381-2202

제1회 새누리교회 선교대회

산호세 새누리교회(담임 손경일 목사)는 제1회 새누리교회 선교대회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는 주제로 4월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선교대회의 강사는 고현종 목사(디사이플교회 담임),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담임), 그리고 손경일 본 교회 담임목사이다.

▲ 문의: (650)210-0000, (650)428-0880

2025 생수부흥회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최형규 목사)는 2025 생수부흥회를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개최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의 일정은 28일(금) 저녁 7시30분, 29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30일(주일) 오전 7시 45분, 11시30분

▲ 문의: (562)653-0168

아이에아은혜교회 2025 VBS

아이에아은혜교회(담임 정상용 목사)는 2025 VBS를 “True North: Trusting Jesus in a Wild World”라는 주제로 4월27일, 5월4일, 11일, 18일,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개최한다. 영유아부와 아동부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VBS의 참가비는 1명 \$30, 2명 \$25, 3명 \$20, 4명 \$15이다.

▲ 문의: (808)294-6948

새노래 선교합창단 창단 1주년 감사 찬양예배

새노래 선교합창단(지휘 이경원 집사) 창단 1주년 감사찬양예배를 4월 6일(주일) 오후 5시에 한빛교회(담임 고광훈 목사 7941 Page St., Buena Park, CA) 본당에서 갖는다.

▲ 문의: (657)253-8561

플라워마운드교회 장종택 목사 찬양간증집회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최승민 목사)는 장종택 목사 찬양간증집회를 4월4일(금) 저녁 8시에 갖는다.

▲ 티켓 문의: (214)513-7707

아이다호한인장로교회 설립기념주일예배

아이다호한인장로교회(담임 장익성 목사)는 설립기념주일예배를 30일(주일) 오전 11시에 갖는다.

▲ 문의: (208)322-8440



원하트 워싱턴목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원하트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랑의빛선교교회 윤대혁 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원하트 워십 찬양집회

“신앙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 한다”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청년부는 원하트 워십팀과 연합으로 22일(토) 저녁 6시 ‘청년, 연합하다’라는 주제아래 찬양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더 가까이’등의 찬양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단에 오른 윤대혁

목사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민 14:19-28)의 제목으로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난다는 말이 있다. 같은 길을 걷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걷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본문에 나타난 정탐군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같은 곳을 보고 온 정탐군의 의견이 달랐다. 10명의 정탐군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을 이야기 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다. 어떤 신앙으로 사느냐가 문제이다. 신앙의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 한다”고 강조했다.

원하트미니스트리에서는 함께 예배사역을 세워나갈 멤버를 모집하고 있다. 세션팀, 보컬팀, 아티팀, 미디어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길 수 있으며 신청은 (213)347-5080, (949)246-4348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굿피플, 양봉농가·취약계층 위한 생생지원 사업

비 더 체인지 사업 진행 중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준동)과 함께 6000만원을 투입해 양봉농가 및 취약계층과 상생하는 ‘비 더 체인지

(Be(e) The Change)’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벌꿀 개체 수가 감소하며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돕고 지역사회 취약계

층에는 영양분이 높은 벌꿀 제품을 전하려는 취지다.

두 기관은 지난달 경북 안동과 경남 하동 양봉농가 100곳에 꿀벌의 먹이가 되는 고체 사료 6000kg을 전달했다. 이어 이달 중 안동, 하동, 부산, 강원 영월 4개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1460명에게 안동과 하동에서 생산된 벌꿀 1750kg을 지원할 예정(사진)이다.

굿피플과 한국남부발전은 지난해 안동과 하동에 1만9800여㎡(6000평) 규모의 밀원수 숲을 조성한 바 있다. 밀원수는 밤나무, 아까시나무 등 꿀벌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다. 김천수 회장은 “앞으로도 양봉농가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최선의 도움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고발 대신 회개의 길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목사

“목사님, 가짜뉴스를 본 성도가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목사는 3주간의 미국 집회를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부교역자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역장이 무너졌다. ‘우리 교회엔 초신자가 많은데, 한 영혼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탄핵 정국에 이 목사를 둘러싼 정치적 유언비어는 진영 논리를 넘어 목회 현장까지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간다.’ 이 목사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사무장에게 명예훼손 고발 절차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목사에게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훼손이나.’ 마음속에선 하나님의 꾸짖음도 들려왔다. ‘너도 보고 싶은 글만 보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지 않냐.’ 연이은 책망

에 이 목사는 다짐했다.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로.

이 목사는 23일 주일설교에서 이같이 간증하면서 “역울한 사건을 겪으며 오히려 내 연합함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오히려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 상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지도하신다”고 했다.

이 목사는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분당우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자기 판단대로 살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며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응답을 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할 때 드러난다”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을 제언했다. 그는 “지금은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한쪽은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이럴 때일수록 상처받을 국민을 위로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목사는 ‘세상이 목마르게 기대하는 기독교’(막 7:14-23)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인공지는 햇빛에 ‘세상이 목마르게 기대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묻었더니 ‘예수님 닮은 교회’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다. 지금 이 시대에 정치적 갈등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총신대 기숙사 건축기금 10억 전달

새로남교회, 3개월간 현금 모아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가 총신대(총장 박성규) 기숙사 건립을 위해 건축기금을 전달했다.

새로남교회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 백남조기념

홀에서 진행된 채플에서 기숙사 건립을 위한 기금 10억원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금은 새로남교회 전 교인들을 초부터 3개월간 기도하며 모은 현금으로 마련됐다.

총신대 기독교교육학과 77학번인 오정호 목사는 “제 혈관에는 총신의 신학이 흐른다”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누가 왕이십니까’(시 145:1~7)를 주제로 채플에서 말씀을 전한 오 목사는 “총신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총신대 가족 모두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며 “다윗과 같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고 권면했다.

박성규 총장은 “오정호 목사님은 총신을 가장 사랑하는 동문”이라며 “단일 교회 중에선 새로남교회가 가장 많은 기금을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이번 기숙사 건축헌금 10억을 포함해 새로남교회는 총신대에 장학금과 발전기금 등 총 25억 9000만원을 기부했다.

욥이 가스라이팅 ...

(2면에서 계속)

첫째, 분명한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 힘을 과시한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압도적인 은유를 담고 있는 땅과 벌, 배혜뿔, 리워야단 등의 표현은 욥을 대화 속으로 참여시키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침묵시키고 억압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이 모든 위대한 역사가 가능한 내게 네가 뉘네 감히 질문을 하는 거냐?

둘째,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해서 묻는 욥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욥의 진짜 불만이 목살되거나 무시된 듯하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대화를 자신의 질문으로 돌리고 욥의 초라한 자질, 제한된 본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무한한 활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강조한다. 결국에 욥의 질문은 무효한 것으로 규정된다. 내가 가진 정신적 능력이 없는 내가 감히 내게 질문할 자격이 있느냐?

셋째, 하나님은 핵심 정보를 숨긴다. 욥은 욥기 1장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거러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 모든 과정이 단지 테스트였다고 말하지 않는 걸까? 악한 사탄과 너의 의로움을 걸고 내기를 했고, 내가 이겼다고 왜 말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이 욥이 알아야 할 모든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욥이 남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욥은 지금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같다.

어떤 남편이 하나님이 욥에게 하듯 아내와 대화한다면, 누구라도 아내를 지지하고 남편을 질

책할 것이다. “내가 집에 월급을 벌어드 주는 사람인데, 지금 내 부주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야? SAT 점수가 나보다 500점이나 낮은 주제에 감히 아이들 교육 문제를 놓고 내게 우려를 심하게 통제하고 또 모욕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변호할 수 있을까?”

욥의 대면

먼저, 가스라이팅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자. 그것은 긴 시간을 두고 누군가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단 한번 만나서 조종되거나 거짓말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지 않는다. 가스라이팅에는 패턴이 있다. 욥기 서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의미에서의 가스라이팅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지만 2세대와 티토커가 사용하는 의미에서 보면 어떨까? 이 경우에 가스라이팅은 오히려 조작이나 모호함의 동의어에 더 가깝다.

폭풍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위협이 아니라 계시이다. 욥기는 지혜의 책이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건함, 존중, 마음 행정에 관한 것이다. 새를 두려워하면 끊임없이 새를 살피기 마련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를 찾는다. 폭풍우는 강력하고 주의를 끈다. 주님도 남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욥은 지금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 같다.

욥의 주된 고민과 질문은 목살되기는커녕 하나님의 현존으로 응답되었다. 욥기의 전체 내

용은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지에 대한 질문과 씨름에 관한 것이다. 번개-눈-토네이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욥의 핵심 질문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실히 대답한다. 아 니, 욥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예, 저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네 질문에 대답하겠다.

하나님의 대답은 욥의 관점을 목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점을 맥락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언제 고통당했느냐?” “네가 겪은 일은 타당하지 않아.” 또는 심지어 “너는 틀렸어.” 하지 않는다. 욥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는다. 욥을 향한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다. “너는 유한한 존재야.” 욥이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얻은 건 아니다. 대신에 그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나는 귀로만 주를 들었지만, 이제에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욥 42:5).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욥의 질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의 믿음과 그 믿음을 자신의 고통에 대한 실제 경험과 조화시키려는 투쟁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욥은 비로소 자신의 경험을 리워야단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맥락에서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의 무시무시한 힘조차도 주님에게는 애완 카나리아에 불과하다. 욥은 그 사실을 “알았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르게 “알았다.”

욥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경이로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내는 초월성을 다시 인식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근접성이 바뀌었기에, 그는 지혜를 키울 수 있었다. 이제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에게 가

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둔 내기에 관해서 당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첫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욥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욥은 혼돈의 위대한 대리인인 리워야단이 여호와와 통제를 받는다고 들었다. 여호와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둘째, 하나님은 욥에게 그가 살고 있는 현실과 씨름하는 데 필요한 관점을 보여준다. 그 결과 욥은 현실과 더욱 일치하며, 누군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할 때처럼 현실과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맑은 정신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제대로 존중할 수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의 시작이다.

말씀의 학생들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가진 느낌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다. 우리가 본문 속으로 가져가는 건 사실상 내가 가진 사회학적 맥락과 신학적 전제가 포함된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려는 유혹과 경향을 의식하고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은 결코 욥을 학대하는 분이 아니다. 사실, 그 반대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는 욥을 혼돈과 혼란에서 현실로 초대하고, 그를 새롭게 축복한다. 욥의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가 제기한 핵심 질문(“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이 하나님의 현존으로 응답받을 때, 그를 괴롭히던 믿음의 위기는 어느새 녹아버린 눈처럼 사라진다.

by Seth Troutt, TGC



밥차운영·지원금 전달... 교계, 산불 이재민 구호 나서

하루 세 차례 밥차 운영 식사 제공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이재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교회 교단 연합기관들은 밥차를 운영해 이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전달하고 있다.

구세군 원당교회(사관 안솔베)는 경북 의성체육관 대피소는 식량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안솔베 사관은 23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성군청으로부터 배식 지원 요청을 받고 망설임 없이 뛰어나왔다”며 “23일 저녁부터 이재민들에게 식사 봉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성군 내 이재민 948명이 의성체육관과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원당영문교회는 의성체육관을 비롯한 긴급 대피소 3곳에 배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어림잡아 1000인분 이상을 나눴다.

원당교회도 산불 발생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교회 안전보다 구호에 먼저 나섰다. 안 사관은 산불 발생 당시 교회를 교인들에게 잠시 닫고 긴급 20여명을 직접 대피소로 이동시켰다. 그는 “그사이 불길이 교회로 넘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과 교회 주변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며 대비했다”고 긴급했던 상황을 전했다. 한국구세군(사령관 김병윤)은 의성과 산청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이동급식 차량으로 이재민을 위한 식사를 하루 세 차례 제공한다. 의성에는 최대 700인분, 산청에는 250인분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함동소속인 의성교회(전용표 목사)는 임시 당회를 열고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전용표 목사는 “현재 이재민들은 급작스러운 산불로 경황이 없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정리되면 곧장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추후 대피소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교회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의성군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45%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그렇다 보니 의성군에 실질적인 봉사자가 적다는 게 전 목사의 설명이다. 그는 “대부분이 고령자이기에 봉사를 자원하고 싶어도 여의치 못하다”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봉사단(대표단장 김태영 목사)은 지역 기독교연합회와 각 교단 관련 부서들과 협력해 구호에 나선다. 대피소를 방문해 지원금과 피해 복구기금을 전달하고 산불을 진화하다 사망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또 사순절 기간 교회들과 피해 주민들을 돕는 모금활동을 전개한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산청지부 김상은 목사(산청교회)는 “현재 주민들은 안전하게 대피했고 긴급구호 물품과 식사제공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먼저 산불이 진화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후 피해현장 복구 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72]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문화 예술의 선교적 역할과 중요성: 시대를 넘어서 (1)

“문화 예술 선교 서밋” (Arts in Mission Summit) 이 일본의 닛포지역의 한 기도원에서 3월2일부터 6일까지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역교회를 대표한 목회자, 선교계를 대표한 선교지도자, 현장의 예술가들과 예술 공연들을 기획하는 기획자들 4개 분야의 40명이 모였다. 나이는 2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여하였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상황을 듣고, 예술과 선교의 관계를 고민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회였다. 자신들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감격하는 20대의 젊은 예술인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필자에게도 큰 축복이었다.

한국 선교계에서 문화 예술인들을 정식으로 선교의 주체적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18 KWMA 세계선교대회 및 제7차 선교전략회의”에서 문화예술 영역의 전략모임이 진행되었다. 오랜 동안 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예배를 돕는 기능인, 선교를 돕는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로 인정을 받아왔다. 처음으로 선교대회에서 중요한 독립적 영역으로 인정받아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선교사들과 단체들의 명단을 발행하고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2022년에는 KWMC가 주최한 제9차 한인 세계선교대회에서 문화 예술 선교 트랙이 준비되었고, 미주에서 사역하는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기회가 되었다. 2024년 제10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면서 예술인들의 선교적 사명 감당을 위한 제도적인

발전 필요에 대해 공감하고 준비된 모임이 2025년 닛포에서 열린 문화 예술 선교 서밋이다.

문화와 예술은 기독교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이 두 영역이 선교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 왔다. 오늘날 예술과 문화는 더 이상 단순한 감상이나 창작의 차원을 넘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지만 교회의 역사에서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

존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칼빈의 예술에 대한 견해는 성경, 예배에서의 단순성, 그리고 중세 가톨릭 관행에 대한 거부라는 종교개혁의 강조점을 반영하고 있다. 칼빈은 교회에서 예술의 사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특히 예배의 환경에서 그렇다. 그는 예배가 시각적 또는 장식적 요소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성경 중심의 강조는 칼빈이 교회에서 이미지, 조각상 및 기타 형태의 종교적 예술을 거부한 이유이다.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예술적 표현이 아니었다.

칼빈은 종교적 예술을 우상 숭배의 형태로 보고 이를 교회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지나 상징이 우상 숭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는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성상 숭배 관행을 비판한 이유와 일치한다. 칼빈에게 있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교회에서 종교적 예술을 거부하는 중요한 근거였다.

칼빈은 교회에서의 종교적 예술을 거부했지만, 예술을 전반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예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을 반영하는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칼빈은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고 믿었으며, 예술도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예술이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숭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칼빈은 예술을 인간 문화의 일부로 보았다. 그는 예술이 인간의 문화적 명령의 일환으로서, 인간이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을 포함한다고 믿었다. 예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인간 사회의 반영과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예술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숭배를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츠빙글리는 칼빈과 유사하게 예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예배에서 성상과 이미지를 제거하려 했으며, 교회의 예술적 장식이 신앙의 순수함을 방해한다고 믿었다. 츠빙글리는 교회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진적 개혁자들인 아나뱃티스트들은 교회에서 예술과 이미지 사용을 더욱 극단적으로 거부했다. 그들은 예술이 신앙의 순수성을 해친다고 보고, 예배에서 예술적 표현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기 교회의 단순함을

추구하며, 모든 형태의 예술적 표현이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다.

마르틴 루터는 칼빈보다 예술에 대해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루터는 음악을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며, 특히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송가를 강조했다. 루터는 음악을 통해 교리 교육과 회중의 신앙을 고양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와 같은 찬송을 작곡하기도 했다. 그러나 루터도 종교적 이미지와 예술을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이러한 예술이 예배의 중심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예술에 대한 견해는 예배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는 의도로 형성되었다. 칼빈의 예술에 대한 엄격한 거부는 우상 숭배를 방지하고 성경 중심의 예배를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루터는 음악과 예술이 교회 예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종교적 이미지를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신중함을 기했다. 츠빙글리와 칼빈은 예술을 예배에서 제거하려 했으며, 예술의 사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예술이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예술은 문화적 명령의 일환으로 인간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술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교회와 사회에서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술이 예배에서 그 자체로 숭배의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예술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초대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지하에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술적 표현보다는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4세기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특히 비잔틴 제국과 중세 교회에서는 예술을 중요한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예술은 성경 이야기

와 교리의 시각적 전달을 목표로 했고, 성화와 성상, 제단화 등은 신앙을 표현하고 신자들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감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특히 존 웨슬리와 같은 초기 근대 개신교 운동에서는 예술, 특히 음악과 찬송가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웨슬리는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하며, 음악을 신앙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했다. 그는 예배에서의 음악이 신자들의 신앙을 고양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웨슬리의 찬송가는 감성적이고 신학적인 깊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예술에 대한 접근은 더욱 다채로워졌다. 예술과 신학이 더 밀접하게 결합되었고, 예술을 통한 신앙의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술가들은 성경의 이야기나 신학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제작하면서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예술을 사용했다. 또한, 교회와 예술이 상호작용하면서 예술이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신앙을 심화시키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예술에 대한 시각이 매우 다양해졌다. 프랜시스 웨퍼는 기독교인 삶에서 예술이 중요한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문화, 특히 예술과 어떻게 교류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예술을 믿음을 표현하고 세상과 교류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보았다. 웨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적인 능력도 그 형상의 일부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은 이러한 창조적 능력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아름다움, 창조성,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은 단순한 개인적인 표현이나 미적 즐거움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웨퍼는 기독교인들이 문화와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고 믿었다. 예술은 그 문화가 가진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예술을 통해 문화를 도전하고 구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격리되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예술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은 이 세상의 깨어짐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웨퍼는 예술이 예배의 한 형태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삶, 그 중에서도 예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예술을 창작하고 그 예술을 감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했다. 예술은 하나님을 높이는 한 형태로, 창조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진리 전달의 수단으로서의 예술을 강조하였다. 웨퍼는 예술이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본질에 대해 깊은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현실을 표현할 기회를 가진다. 웨퍼는 기독교인들이 예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구속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웨퍼는 예술이 세상의 깨어짐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희망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예술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경이감을 불러일으키고,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예술은 단지 오락이나 도피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구속적 역사를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이다.

〈다음호에 계속〉
dr.yongcho@gmail.com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2. 담대하게 기도하라!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신앙생활 축복이다. 필립 안시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라는 책에서 “기도는 진부한 일상을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한다. 도전과 아픔 그리고 장애물 가득한 인생에서 기도하면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성경과 교회 역사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상처를 품고 원한 맺힌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반면에 그 상처와 원한을 기도로 치유 받고 사는 사람도 많다. 기도를 통해 상처를 치유 받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잘 알려진 사람이 벨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다.

벨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잔인한 인종차별 역사의 산증인이다. 그는 잔인하고 모진 차별과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잔인한 상처를 극복했다. 만델라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수 있었던 원동

력이 기도였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는 상처에 묶이지 않고 창의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용서와 화해의 선언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신앙인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잔고가 가득한 은행 통장을 갖고도 출금하는 수고가 싫어서 가난하고 비루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도의 수고가 크다. 기도가 쉽지는 말이다. 기도의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그러나 기도의 유익을 생각하면 기도를 게을리할 수 없다.

기도할 때 너무 수동적일 필요가 없다. 성경에는 담대하고 뻔뻔한 기도가 많다. 이런 뻔뻔한 기도의 좋은 사례가 고대기에 등장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도 참 뻔뻔하고 담대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기도한다.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의 직접적인 유익을 추구한 것은 아니더라도 뻔뻔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드린다.

가인의 기도는 뻔뻔하다 못해 가증스럽게 보인다. 창세기는 에덴동산에서 발생한 인류 최초살인사건을 설명하며 가인의 기도를 소개한다. 성경에 나타난 첫 기도가 가인의 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 응답하셨다. 살인자 가인의 기도가 성경의 첫 기도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우선 기도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음을 웅변한다. 살인자마저 기도할 수 있고 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증거다.

살인을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던 가인은 뻔뻔하게 자신의 죄벌이 무겁고 두렵다며 하나님께 아뢰다. 창세기 4장 13~14절에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밟을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린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

움을 하소연한다.

가인의 기도에 회개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회개도 없는 가인의 기도가 응답 된다는 것이 흥미롭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기도대로 가인을 보호하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셨다. 회개하지도 않은 살인자의 뻔뻔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회개의 무용론이나 무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추악한 죄인도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 5장 14절~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들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는다.”라고 말씀하신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로 구하는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둘째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품(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기도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인과 아브라함 같은 담대함이 필요하다.

소신지서 하박국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로 구성되었다. 선지자 하박국은 1장에서 두 번(2절~4절, 12절~17절)의 기도를 드린다. 8개의 의문문이 등장하는 이 두 기도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게 항의하며 질문한다. 하박국은 강하게 불평하며 원망을 토로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기도에 담긴 원망과 불평을 듣고 응답하신다.

불평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불평은 파괴적인 불평이 아니라 창조적인 기도가 된다. 자랑과 칭찬을 사람에게 하면 공허한 자랑과 칭찬에 그치겠지만 하나님께 자랑과 칭찬을 드리면 찬양과 경배가

된다. 기울어지는 나라의 형편과 백성들의 방종을 보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박국은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하박국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가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을 말씀하면서 믿음을 정의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서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Reward)을 주심을 믿는 것’이라고 믿음을 정의한다. 여기서 상은 응답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믿는 만큼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담대하게 기도한다! 스스로 가인과 같이 추악하여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불평과 원망도 기도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한 기도가 된다.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에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 (눅 22:1-6) 찬 436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드러지는 날이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죽일 방도를 궁리합니다. 사탄은 유다를 충동하여 예수님을 넘기게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막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막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며, 그분의 율타리가 거두어지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화 하나님의 율타리 안에서 누리는 평안 (눅 22:31-34) 찬 438장

악한 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그분의 지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시험하기 위해 청했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 세 번 주님을 부인하지만, 결국 회복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

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옴도 하나님의 율타리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며, 우리도 그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수 하나님의 뜻 (눅 22:40-46) 찬 369장

예수님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유다는 이미 배반을 위해 떠났고,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한 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으며, 이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피 흘림은 구원의 법적 증거가 되

어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며, 이를 통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 스스로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 (눅 22:47-53) 찬 289장

그 밤, 가롯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려 하자, 주님은 그가 인자를 파는 것을 지적하셨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은 이를 막으셨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계셨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악한 의도대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초월하여 일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죽음으로 나아가셨고,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가장 존귀한 드림이었다.

금 죄의 본질 (눅 32:1-4) 찬 284장

우리는 죄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죄는 악한 영이 활동하는 것으로, 그 배후에는 악한 주인이 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다. 악한 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건을 이끌어 가며,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

게 방해한다. 인간은 사탄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충동을 따라 행동한다. 죄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진행한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죄는 협박과 시기로 그를 처형하게 만든다. 죄는 목적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논리를 이끌어 간다.

토 죄로 인한 형벌 (눅 23:11-25) 찬 287장

하나님의 막으심이 없으면 죄가 이긴다. 대중의 소리로 죄가 승리하며,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악이 이기면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는 것이다. 사탄은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끌어 가며, 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정의와 진리가 이기지 않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멀어지면 죄와 멸망, 불행이 이기고, 형벌이 다가온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면 죄로 인한 형벌만 남는다.

교회음악 이야기(73)

윤임상 목사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를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14세기 종교 개혁자 얀 후스(Jan Hus, 1372?-1415)의 후예들로 현재 체코의 보헤미아, 모라비아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18세기 합스부르크의 카를 6세(Karl VI, 1685-1740)가 내린 개신교 말살 정책 칙령에 의해 개신교가 흑심한 박해를 받자,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갈 곳 없어 방황하다 독일의 진젠도르프(NicholasLuding von Zinzendorf, 1700-1760) 영지인 독일작센의 베르텔스도르프(Berthelsdorf)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진젠도르프는 이들을 자기 영토 안에 머물게 하였고 이들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원래 루터란 이었던 진젠도르프는 나중에 결국 모라비안 비숍이 되었습니다.이렇게 독일 작센 지역에 형성된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어두워지는 유럽 교회에 바른 복음의 깃발을 세우며 새로운 생명과 빛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진젠도르프가 마음에 품고 있던 모토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Christ”를 통해서도 익히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중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뜨거운 영감의 찬양으로 그 중심사상을 표현하며 살아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대서양을 횡단하던 가운데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와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 형제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36년 1월,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품고 복음의 순례를 시작하려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존, 찰스 웨슬리 형제도 아틀란타 지역에 선교를 위해 같은 배를 타고 가던 중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우 속에서 모라비안 들을 관찰합니다. 웨슬리 두 형제는 그 환경속에서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 한편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에 가까이 가 보니 그 환경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뜨거운 영감의 찬양을 부르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 였습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던 그 원동력은 “십자가, 복음” 그것 이외에 다른 어느 것으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예수님이 오시기 약 680년경 이사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이사이 53장 5-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결국 하나

님 앞에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길잃은 양처럼 헤메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형벌을 통한 구원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 한국의 장민호 작곡가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수난절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같은 멜로디에 6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가지고 각각 두절의 음악을 전개해 갔습니다. 이 작품의 특이함은 멜로디를 진행하는 데 있어 흔하지 않은 도약(6도, 7도) 들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작곡가는 예언의 신비를 보여 주는 듯합니다. 그 불안한 현상을 표현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주 멜로디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때로는 허공을 치는 듯하고 있는 외침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분명 한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것이 이사가야 선지자로 활동하며 예언했던 핵심이었고, 모라비안들이 품고 있던 영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라비안들의 뜨거운 영감의 찬양이 회심의 결정적 동기가 되었던 존, 찰스 웨슬리 형제의 핵심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영광의 무게(The weight of Glory)”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베토벤 같은 작곡가의 일도 파출부의 일도 정확히 똑같은 조건에서만 영적이다. 즉 주께 하듯 겸손히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더지는 땅을 파고 수탉은 울어야 한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무슨 일이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영적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사랑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적당한 중요하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명확성과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 힘을 다해 뜨거운 영감의 찬양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iyoona@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기억은 추억이 되어
덕을 소중합니다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편지**

태국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와 염려 가운데 저희들은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태국 비자 연장을 위해 지난 2월 4 - 3월 3까지 태국에 한 달 정도 들어갔다가 3월 4일 다시 한국에 나와 하남 보바스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국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진행해야 해서 기도하며 태국에 들어갔는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1) 태국 1년 비자를 잘 연장 받았습니다. 튀르키예 떠나기 하루 전날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 씨드 선교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2) 저희들이 담임하는 에벡교회 구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기로 하여 5월 달 안에 이전을 해야 하는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고 저희들도 태국에 있는 한 달 동안에 교회를 이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장소를 찾아 전 교인이 함께하여 일주일 안에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3) 저희 법인 재단 TMP 회장이며 제7노회 전 노회장인 "찬" 장로가 2024 2월 2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2024년 법인 재단 사업 및 재정보고를 잘 마쳤습니

다. 4) 3월 11-14일 개최한 제7 노회의 정기 노회 위해 에벡 교회 사역보고 및 재정 보고와 선교부 사업 및 재정보고를 제출하였습니다. 5) 지난 2월 19-24일까지 튀르키예에서 제5차 SEED 선교대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주제로 모임이 있어 참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파송교회 담임목사님 내외분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동료 선교사들과 교제하였으며 모든 참여자들이 저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 속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많은 도전과 격려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녀 태환이도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제3대 선교사 자녀로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K들의 마음의 고충과 생각을 들으시려고 애쓰시는 본부와 이사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어서 2월 24-28일까지 튀르키예에서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성지 여행을 함께 동행했는데 저의 자녀 중 큰아들 태환이가 동행하여 아빠를 도우며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함께 느끼며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예정대로 돌아오는 날 그리스에 전국적으로 트랜스포테이션 대모가 있어 비행기 운항이 정지된 가운데 표를 2일 앞당겨 변경하여 태국에 일찍 도착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교부 사역을 돕기위해



미국에서 한 가정 (정인홍-Andy Tschong 목사)을 영입하기 위해 노회에 신청했습니다. 비자가 나오는데로 태국에 입국해 에벡교회에서 협력 사역할 계획입니다.

개척교회 소식

제2번째 개척한 파타나칸 교회는 오랫동안 예배당을 건축하고 오는 5월 10일 헌당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13번째 탄지윗교회는 그동안 성장하여 4월에 현 교회 근처에 있는 새 건물로 이전하기위해 3월15일에 계약했습니다. 제15번째 방콕감사교회 사역자 마띠 전도사는 3월 29일에 같은 B.I.T. 신학교 동문인 쉰와난 (수석으로 졸업) 전도사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제16번째 개척교회 방버교회 사역자가 3월말로 사임하게 되어서 새로운 사역자를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분간 그 교회 섬길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7번째 에벡교회 창립 11주년 기념 예배와 2명 (스토롱과 데릭)의 학생에게 세례식을 베풀었습

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저의 가족 5명과 에벡 대학생 2명 (미얀마 선교사 자녀) 이 함께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영선 선교사는 한국에서 5월 말까지 치료받을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태국에 들어가 통원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신영선 선교사 재활치료에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2. 개척교회들이 성장하며 방버교회 새로운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3. 세라 태환 명환이 주님안에서 신앙이 성장하며 건강하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신영선, 김봉순 선교사 드림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캄팔라기안 종족

▲ 인구
약 30,000명

▲ 종교
이슬람교 99%, 복음화율 1%

▲ 복음매체
성경 번역 요청됨,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파일
농업, 어업, 무역으로 생계를 잇는다. 부모가 택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관습이 남아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기에 삶의 전반에 이슬람교 문화가 배어 있다. 자신이 무슬림이 아닌 다른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렵다. 하지만 두려움을 쫓을 때는 정령의 힘을 의지한다.

▲ 기도제목
1. 캄팔라기안 종족에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2. 캄팔라기안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3. 이슬람교 교육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가 많이 생기도록
4. 복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와 환경이 마련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만성 변비에 대하여

만성 변비는 매우 흔한 질환인데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2-3배 더 흔하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빈도가 증가한다. 위궤양이나 담낭질환, 위산 역류질환 등 흔한 위장관보다도 빈도만 따지고 보면 더 흔하다.

만성 변비의 정의를 살펴보면 3개월 이상 배변에 이상을 느끼는 질환인데 특별한 이유없이 발생하는 일차성 변비와 약물이나 부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이차성 변

비로 나누어 볼 있다. 일차성 변비는 장운동 자체가 느려서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노인들에서 흔한 경우로서 골반 근육이 약화되면서 배변에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장운동은 정상이지만 변비가 있다고 느껴거나 굳은 변을 볼 때 환자가 심리적으로 변비로 인식할 수도 있다. 이차성 변비는 약물로 인해서 생기는 데 약물 중에서도 심장약이나 부정맥, 진통제 등은 만성변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심한 경우는 주치의와 상의해야 한다.

변비에 대한 정의는 의사나 의학 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변비에 관한 Rome III 정의를 살펴보자.

변비는 증상의 빈도와 정도를 종합해서 정의하는데 총 배변횟수 중 25% 이상에서 다음 여섯 가지 증상 중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는 변비로 정의한다. 첫째, 배변이 힘들거나 둘째, 변이 딱딱하게 나올 때 셋째, 변을 본 후에도 완전하게 비워지지 않은 느낌이 들고 넷째, 항문/직장이 막힌 느낌이 들고, 다섯째, 변을 볼 때 손가락으로 비워내야 하고, 여섯째, 일주일에 변을 세 번 이하로 본다.

변비를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크고 작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변비가 심할 때 역지로 변을 보다가 보면 항문이 찢어지는 열상이나 치질 등으로 대변을 볼 때 출혈을 할 수도 있고 배변

시 심하게 힘을 주다가 보면 뇌혈관이나 심장 혈관에 지나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심장 마비, 중풍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노인들에게 만성 변비는 매우 심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노인들은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등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할 수도 있는데 약물 부작용으로 만성 변비가 올 수도 있다. 또 노인의 경우 장운동 자체가 느려져서 쉽게 변비가 올 수도 있는데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만성적으로 변비를 유발하는 심장, 혈압약 등을 복용할 때도 심한 변비로 인해서 장폐색이 올 수도 있다.

만성 변비는 변비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장암이 초기에 발견되지 않고 커져서 장을 막을 경우에도 변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변비는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

▲문의:213-383-9388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캐나다 한국/동남아시아	\$100 \$130 \$240	유럽 남미 아프리카	\$240 \$240 \$240
신청유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목 사 ☐ 평신도 ☐	
배달주소			
전화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			
배달주소			
교회/기관명			

E-mail 구독신청 :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담임목사청빙공고

한인 동산 장로교회는 미국개혁신교단(RCA) 소속으로, 뉴욕주 Westchester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5년에 설립되어 50주년이 된 교회입니다. 2025년 12월 은퇴 예정인 제 2대 담임목사님의 후임으로 사역을 이끌어 주실 제 3대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공고합니다.

A. 자격 요건

1. 미국 개혁신교단(RCA) 또는 개혁신앙을 따르는 교단에 소속되신 분
2.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3.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로서 Full-time 목회 경험 3년 이상 있으신 분
4. 한국어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
5.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B. 제출 서류

1. 이력서 (신학 교육, 목회 경력 포함 및 본인·가족 사진 첨부)
2. 소개서 (본인 및 가족 소개)
3. 신앙고백서 (목회소명 간증문)
4. 목회 계획서 (장·단기 목회 계획)
5. 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M.Div 포함) 및 목사 안수 증명서)
6. 설교 영상 (최근 1년 내 설교 동영상 3편, 설교 원고 포함)
· 주일 설교: 한국어 2편 또는 한국어 1편 & 영어 1편
· 절기 설교: 한국어 1편
7.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자가 청빙위원회 공식 이메일로 직접 제출)

C. 유의 사항

1. 모든 서류는 한인 동산 장로교회 공식 이메일 (church.nydongsan@gmail.com)로만 접수받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청빙 과정에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명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빙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5. 서류 접수 마감일: 2025년 5월 31일

한인 동산 장로교회 청빙 위원회
Dongsan Korean Reformed Church of Westchester

100 Herrmann Place, Yonkers, NY 10710
https://nydongsan.com
church.nydongsan@gmail.com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소중한 마음”

운동을 위해 걷고 있는 제 눈길에 봄이 오고 있는 것이 아주 아주 너무도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멀리에는 아지랑이가, 잔디밭에는 이름 모를 아주 작디작은 하얀 꽃무리가, 그리고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는 버드나무가지에는 연초록의 옷을 여민 채 수줍은 듯이 얼굴을 내민 버들강아지의 앳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봄은 엄동설한 험한 겨울을 헤집고 넘어 제 가까이 왔습니다. 반가운 나머지 저는 가까이 다가온 봄소식을 농칠새라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담기 시작했습니다. 버들강아지의 수줍은 얼굴을 담



고자 블랙베리 가지의 위험을 헤집고 다가가 얼른 카메라에 담아 저의 사랑하는 네 아이들에게 봄내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서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아이들의 반

응이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이게 뭐야?" 하고 응답해왔습니다. 또 한 아이는 "오, 봄이 오고 있다는 거네. 봄"하고 반응해왔습니다. 또 한 아이는 "아, 막 씹이

트는 모습을 담은 예쁜 사진.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이 경우를 통해서 저는, 저

에게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봄이, 이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이 이리도 반갑고 예쁘고 기쁘고 환상적인데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봄이로구나. 봄 봄" 하고 들려오는 어느 노래가사처럼 그렇게 봄이 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맞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 49:20)."

주일 예배를 위한 찬양, 제대로 선택하고 있나요?

새로운 찬양을 도입하기 위한 기준들

예배 담당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교회의 찬양 및 찬송가 레퍼토리를 관리하고 새로운 곡을 선정하여 교회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부르는 찬양은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주며, 예배 목사가 주된 가르침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는 매우 영향력 있는 역할입니다. 결국, 예배 중에 부른 찬양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교인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찬양을 선정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찬양을 선택해야 할까요? 왜 어떤 곡은 선택되고, 또 어떤 곡은 제외될까요? 저는 교회에서 새로운 찬양을 도입할 때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을 던집니다. 주일 예배에서 부를 곡이라면, 이 기준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1. 가사가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명확한가?

보통 멜로디가 먼저 제 관심을 끄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항상 음악 없이 가사만을 한 줄씩 읽어보며 그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찬양이 건전한 신학을 담고 있는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면, 그 의미가 여전히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저는 명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성경적인 많은 찬양들이, 지나치게 모호한 가사 때문에 첫 번째 기준에서 탈락하곤 합니다.

예술적인 표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배곡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그 곡은 주일 찬양으로 채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힐송의 What a Beautiful Name이라는 찬양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You [God]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당신[하나님]은 우리 없이 하늘을 원하지 않으셨다.) 이 가사는 첫 번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존성(aseity)—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교리를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What a Beautiful Name은 주일 찬양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찬양의 가사가 정통 신학

에 부합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찬양을 도입하기 전에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들에게 문의하세요. 그들은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찬양이 불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꺼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2. 노래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연주하기 쉬운가?

예배 인도자들은 종종 자신의 목소리를 돋보이게 하는 곡이나 키를 선택하지만, 일반 성도들에게는 부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몇몇 높은 음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음악팀과 회중 모두에게 편한 키로 연주되어야 합니다. 또한, 음악팀의 연주 실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곡이 회중이 부르기에 적절한 키로 연주되거나 노래되기 어렵다면, 그 곡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리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회중이 복잡한 곡을 따라가는 능력이 다를 수 있지만, 몇 번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복잡한 리듬이라면 주일 예배에 도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중이 영적으로 성장하듯이 음악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끔은 조금 더 도전적인 곡을 시도하는 것도 필

요합니다.

노래가 부르기 쉬워도, 회중이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곡을 4주 중 3번 정도 부르도록 계획합니다. 또한, 가사가 설교 주제와 잘 어울리도록 신중하게 선택하며, 경우에 따라 몇 달 동안 기다렸다가 적절한 시기에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곡을 기억하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3. 신학적 또는 음악적으로 필요한 곡인가?

현재의 찬양 목록을 검토하여 신학적·음악적 균형이 맞는지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죄에 대한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곡이 충분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곡이 있는가?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탄식을 가르치는 곡이 있는가?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적으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곡이 강렬한 후렴과 긴 브릿지를 가진 찬양으로만 구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쾌한 곡과 느린 곡, 큰 소리로 부르는 곡과 조용한 곡, 현대적인 곡과 전통적인 찬양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 있는 교인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곡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에서 부르는 곡의 아티스트에게는 회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곡이 모든 기준을 통과했다면, 저는 그 아티스트를 조사합니다. 가능한 한, 그가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기독교 전통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늘날에는 SNS나 Patreon 같은 플랫폼을 통해 찬양 아티스트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예상보다 쉽게 아티스트와 대화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조사할 때, 저는 최대한 은혜로운 태도를 가지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설교나 기타 신학적 자료를 공개적으

로 제공하는 교회나 사역 단체에서 나온 곡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교회의 찬양곡을 추천할지 결정합니다.

어떤 곡이 모든 기준을 통과했다면, 그 곡의 가사는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명확하며, 멜로디는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저와 음악팀이 연주할 수 있으며, 교회의 찬양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곡을 만든 아티스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나, 최소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만 주일 예배곡으로 선정됩니다.

by Brandon Ryan, TGC



여준모 위장간내과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여준모 위장간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 형, C 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